

碩士學位論文

『說文』部首字的 誤謬 研究

- 甲骨文과의 比較를 통하여 -



2002年 12月

『說文』部首字의 誤謬 研究

-甲骨文과의 比較를 통하여-

指導教授 安 在 哲

徐 永 根

이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12月



徐永根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審査委員長 郭 利 夫

審査委員 李 滢 鎬

審査委員 安 在 哲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2年 12月

目 次

凡例	ii
I. 緒 論	
1. 研究目的	1
2. 研究範圍와 方法	2
II. 『說文解字』 誤謬의 原因	3
III. 『說文』 部首字의 誤謬에 관한 分析	8
1. 字形의 側面	
1) 字形分析이 正確하지 않은 경우	10
(1) 人體 (2) 動物 (3) 器物 (4) 衣食住 (5) 其他	
2) 甲骨文에서는 同一字 혹은 異體字인 경우	32
2. 字義의 側面	
1) 字義解說이 正確하지 않은 경우	35
(1) 人體 (2) 動物 (3) 其他	
2) 本義가 分明하지 않은 경우	42
3. 字形, 字義解說이 모두 正確하지 않은 경우	48
(1) 人體 (2) 動植物 (3) 器物 (4) 衣食住 (5) 其他	
IV. 結 論	85
參考文獻	89
中文抄錄	91
【附錄】	
『說文』 540部首의 小篆과 甲骨文 對照表	93

凡 例

1. 『說文解字』를 『說文』이라고 약칭한다.
2. 原文과 小篆은 大徐本을 따른다.
3. 原文에서 “凡○之屬皆從○”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생략한다.
4. 原文 중에 “○古文○”, “○篆文○”, “○籀文○”은 생략한다.
5. 原文 중의 漢字 가운데 今字는 없고 異體字가 있는 경우에는 異體字를 사용하였다.
6. 部首 앞의 숫자는 540部首 중의 順序를 나타낸다.
7. “屬字”라 함은 部首 뒤에 收錄 된 漢字를 가리킨다.
8. 甲骨文은 『甲骨文字典』(徐中舒 編)을 주로 참고하였다.
9. 甲骨文은 第1期 文字를 중심으로 하되 여러 期의 文字가 있을 때에는 小篆에 가장 가까운 것을 택하였다.

I. 緒論

1. 研究目的

中國에서 現在 사용하고 있는 漢字의 字數는 5萬餘字가 되며 그 중 通用漢字는 6千字좌우¹⁾인데, 5천字 이상 記憶하는 사람이 드물 것이다. 記憶 못하는 漢字는 100% 字典에 依據한다. 그만큼 字典이 重要的 것이다.

『說文解字』는 中國 最初의 字書이다. 우리가 現在 『新華字典』이나 『玉篇』 등을 使用하듯이 『康熙字典』이 나오기 以前에는 모두 『說文解字』에 根據하여 漢字를 解釋하였다. 『說文解字』가 없었다면 2000여 년 전에 通用되었던 小篆의 形·音·義를 알 方法이 없을 것이다.

『說文解字』에서는 처음으로 漢字를 部首로 分類하는 方法을 使用하였는데 當時 通用되었던 小篆 9,353字를 540部首로 歸納하여 解說하였다. 이 方法은 後世의 『康熙字典』, 『新華字典』 등 각종 字典과 辭典의 編纂에 큰 影響을 미쳤으며, 檢字를 하는데 必須의인 手段이 되었다.

이처럼 『說文解字』는 中國 言語文字學上 重要的 位置를 차지하고 있으며 中國에서 뿐만 아니라 日本, 韓國과 臺灣 등의 漢字文化圈 地域에서도 많은 研究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清末에는 『說文』學의 研究가 盛行하여 許學이라고도 일컬어지는 段玉裁의 『說文解字注』, 王筠의 『說文解字句讀』, 朱駿聲의 『說文解字通訓定聲』 등 著書들이 出現하였다. 現代에는 陸宗達의 『說文解字通論』, 江舉謙의 『說文解字綜合研究』, 臧克和의 『說文解字的文化說解』, 余行達의 『說文段注研究』, 董蓮池의 『說文部首形義通釋』, 趙平安의 『說文小篆研究』, 康殷의 『說文部首銓釋』, 王峙淵의 『說文研究』, 何大定の 『說文解字部首刪正』 등 단행본들이 있고, 小論文으로는 梁東淑의 「說文解字 部首의 流變」, 劉秀生의 「說文讀若字研究」, 張標의 「說文部首與

1) 黃伯榮, 廖序東 主編, 『現代漢語』, 中國 高等教育出版社, 1993. p.211.

字源」, 高明的 「許慎之六書說」, 江學謙의 「說文古文研究」 등이 있으며, 學位論文으로는 1981년 金槿의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說文解字部首의 字次와 그 意義」, 民國76年(1987年) 李徹의 國立臺灣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說文部首研究」 등 現在까지는 몇 부 정도에 不過한 것으로 알고 있다.

以上の 研究들을 살펴보면 『說文解字』에 대한 註釋, “六書論”, 部首의 배열 원칙 등에 중점을 두고 연구되어 있다. 아쉬운 점은 『說文』 部首字에 대한 研究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筆者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甲骨文을 根據로, 『說文解字』 部首의 字形, 字義에 대한 解說을 집중적으로 研究하여 『說文』에 보이는 誤謬를 校正하고자 하며, 나아가 漢字의 本義를 살펴봄으로서 漢字의 의미를 正確히 인지하고 使用하며 漢字 教育에 대한 좀 더 正確한 基礎를 提供하고자 하는데 그 研究目的을 둔다.

2. 研究範圍와 方法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上述한 研究目的에 따라 본 論文에서는 『說文解字』의 540部首 가운데서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部首” 370字²⁾를 研究範圍로 하며, 甲骨文과의 比較를 통하여 그 誤謬를 찾아내고 原因을 밝히려 한다. 나머지 170字에 대한 解說에서도 誤謬가 存在하지만 甲骨文과 金文 등의 比較 根據 資料가 充分하지 못한 관계로 研究範圍에 넣지 않는다.

또 文字研究의 일반적인 方法에 形·音·義 등이 있는데 본 論文에서는 形·義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方法을 취하고자 한다. 이런 研究方法에 따라 본 論文의 展開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제 1장에서는 研究目的과 研究範圍 그리고 研究方法에 대해 언급하고, 제 2장에서는 『說文解字』 誤謬의 原因을 밝히고, 제 3장에서는 甲骨文과의 比較를 통하여 字形과 字義 측면에서 解說이 正確하지 않은 部首字를 찾아 分析하며, 제 4장에서는 結論을 도출하려 한다.

2) 筆者가 『甲骨文字典』 등 有關 甲骨文資料를 분석하여 얻은 結果

II. 『說文解字』 誤謬의 原因

『說文解字』는 後漢의 許慎이 지은, 中國 言語 文字學 上 不朽의 名著이며 字形을 分析하고 字義를 解說하고 聲音을 가려놓은 최초의 字典³⁾이다. AD 100년경에 完成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약 1900여 년 전의 책이다. 이 책은 후세의 文字學, 聲韻學, 訓詁學 등 方面에 아주 큰 影響을 끼쳤다.

許慎이 『說文解字』를 쓰게된 時代的 背景은 다음과 같다. 『倉頡篇』과 小篆의 作者인 秦의 李斯의 提案으로 이른바 “焚書坑儒”가 실시되어 民間에서 所藏하고 있던 古典資料들을 모두 태워버렸고 民間人들은 『詩經』, 『尚書』 등에 관해 서로 議論하지도 못하게 하였다. 秦이 滅亡하고 漢이 建國되어 動亂도 가라앉을 무렵, 조정은 秦나라에 의한 書籍 통제를 撤廢하여 文獻을 널리 民間에서 구하였다. 하지만 많은 經書들이 버려져 口傳되어 오던 經書 내용들을 當時 通用되던 隸書로 옮긴 이른바 “今文”經書가 出現하게 되었다. 古文經書가 크게 부각 된 것은 漢成帝의 時代였다. 成帝는 陳農이라는 사람에게 명하여 民間에 감추어져 있는 書籍들을 찾아 모으게 하였다. 동시에 劉向 등에게 宮中의 所藏書籍을 調査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古文學이 盛行하게 되었으며, 점차 “今文派”와 “古文派”들의 對立이 생기게 되었다.

古文的 創始者는 劉向의 아들 劉歆이었다. 그러나 劉歆의 古文經書는 王莽에게 利用되었다. 王莽의 新은 불과 15년의 短命으로 끝나고, 劉秀(光武帝)가 漢왕실을 부흥시켰는데, 이후가 後漢이다.

古文經을 신봉한 王莽 일파를 타도한 後漢은, 다시 今文經의 學派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지만 今文의 學問은 前漢 말기에 王莽에 의하여 勢力이 크게 弱化되어 있었다. 한편 古文은 政權奪取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는 하나, 王莽과는 별개의 學問으로서 獨自的인 路線을 걸어가 이미 착

3) 陸宗達 著, 金權 譯, 『說文解字通論』, 啓明大學校出版部, 1994. p.14.

실하게 체계를 이룩한 상태였다. 古文學派는 王莽 政權의 滅亡이라는 정계의 變動에 左右되지 않고 實證的인 研究成果를 단단하게 누적해 왔으며, 드디어 許慎에 의하여 古文經書 解讀에 중요한 根據가 되는 『說文解字』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許慎이 『說文解字』를 쓸 當時에는 小篆의 形·音·義 解說을 위한 根據資料가 되어야 할 甲骨文이 아직 出土되지 않았었다. 즉 甲骨文을 보지 못한 許慎은 當時에 전해지던 小篆의 形·音·義와 자신의 主觀的인 見解와 知識으로 『說文解字』를 썼을 것이 分明하다.

甲骨文이 처음으로 發見 된 것은 1899년의 일이다. 王懿榮이라는 學者가 학질을 앓고 있어 達仁堂이라는 漢藥房으로 사람을 보내 龍骨이 든 葯을 지어오게 하였다. 王懿榮은 그 葯을 한 포씩 살펴보던 중 우연히 龍骨에 未知의 文字 같은 것이 새겨져 있음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리하여 그는 친구 劉鶚과 함께 그것을 鑑定한 결과 마침내 그것이 當時까지 알려지지 않은 中國의 古代 文字임을 確認하였다. 이것이 바로 甲骨文이다. 龜甲이나 큰 짐승의 肩甲骨 등에 새겨놓은 文字이므로 龜甲獸骨文字라고 하는데 약하여 甲骨文 혹은 甲文이라 한다.

甲骨文은 B.C 13세기로부터 商나라가 滅亡하기까지 273년간 使用되었던 文字⁴⁾로서 中國文字學에서는 중요한 根據로 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약 3300년 以前의 文字이지만 이미 상당히 발달된 언어 표기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說文解字』의 成立으로부터 計算한다 해도 이미 1400년 전의 古代文字인 까닭에 過去에는 절대시되었던 『說文解字』의 解釋가운데 漢字의 初形·本義를 正確히 把握하지 못한 것이 多數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하지만 甲骨文이 出土되기 전까지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說文解字』의 解說을 正確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으며,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漢字의 뜻은 대부분 『說文解字』를 따른 것이다.

筆者가 研究한 바에 의하면 『說文解字』의 540部首字 가운데서 “甲骨文




4) 李圃, 『甲骨文文字學』, 中國 學林출판사, 1997. p.3.


에서도 보이는 部首”는 모두 370字이며, 그 중 무려 51.3%에 달하는 部首에 대한 字義 혹은 字形解說이 正確하지 않았다. 한 部首의 屬字들은 모두 그 部首의 의미를 그대로 이어 받으므로, 이는 곧 우리가 現在 本義를 잘못 알고 있는 漢字가 過半數를 차지한다는 事實을 말해준다.



그렇다면 許慎이 『說文解字』에서 誤謬를 범하게 된 原因은 어디에 있을까? 그 原因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綜合하려 한다.

첫째, 제일 큰 原因은 許慎이 甲骨文을 보지 못하였기에 字形을 잘못 보고 解說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本義는 모른 채 引伸義 혹은 假借義에 맞게 字形을 分析한데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卷六上の “東”부의 甲骨文 자형은 이고, 金文은 으로, 마치 꾸러미 속에 물건이 들어 있어 양쪽을 끈으로 묶은 形態와 같다. 許慎은 그 本義를 모르고 假借義인 “동녘 東”으로 解說하였다. 『說文』에서는 “從日在木中(해‘日’가 나무‘木’에 걸린 것을 따른다)”라고 字形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는 甲骨文을 보지 못하고 小篆의 字形()에만 依據하여 解釋한 誤謬이다.



卷六下の “出”부의 解說에서 “象艸木益滋上出達(초목이 점점 자라 위로 나온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동굴을 뜻하는 “凵”과 발을 뜻하는 “之”의 會意字이며, 사람이 살던 동굴에서 나옴을 뜻한다. 그러나 許慎은 “之”를 草木으로 잘못보고 解說하였던 것이다.


卷七上の “多”부의 甲骨文의 자형은 이며, 은 “肉”의 甲骨文이므로 “고기가 쌓여 많다”는 뜻이 되었다. 『說文』에서는 “重夕爲多, 重日爲疊(夕이 중첩되면 多가 되고, 日이 중첩되면 疊이 된다)”고 그럴 듯하게 해석하고 있지만 억지주장에 不過하다. 許慎은 “肉”을 “夕”으로 誤認하고 이와 같은 誤謬를 범하였는데 이는 모두 甲骨文을 보지 못한 原因일 것이다⁵⁾.

둘째, 『說文解字』에는 許慎의 “封建政治를 옹호하는 思想”이 엿보이며, 時代的인 限界가 드러난다.

5)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752.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確認할 수 있다.

卷一上의 部首 “王”字에 대한 解說에서 許慎은 王에게 아부하기 위하여 字形과 字義를 완전히 歪曲하였다. 甲骨文의 “王”字는  혹은  와 같은 形態로 一種의 도끼모양의 兵器로서 원시적인 文字였을 뿐 許慎의 “天下所 歸往(천하가 모두 王에게 귀속된다)”는 解說처럼 심오한 理致는 없었다. “王”字는 바로 古代社會에서 지배계층들이 奴婢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사용한 武器를 象形한 것이다. 許慎은 그 本義를 理解하지 못하고 자신의 解說을 合理化하기 위하여 오히려 董仲舒와 孔子의 말을 引用하여 奴隸主를 天地人의 道를 관철한 聖人으로 만들었다⁶⁾. 그러나 董仲舒와 孔子 역시 甲骨文이 아닌 變化된 後의 “王”字를 解釋한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卷一上의 部首 “土”字에 대한 解說에서 “始於一，終於十. 從一，從十(一에서 시작되어 十에서 끝남이다. 一을 따르고 十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土”의 甲骨文은  로서 “王”字와 마찬가지로 도끼모양의 兵器를 그린 것이다. 『說文』에서 “始於一，終於十”라 함은 “王”字를 “天下所 歸往(천하가 모두 그에게 귀속된다)”고 解釋한 것 과 마찬가지로 權力에 아부하기 위한 解說에 지나지 않는다.

『說文解字』의 時代的인 限界는 “對”, “劉”등 屬字에서도 나타나지만 本文에서는 部首字를 研究範圍로 하고 있기에 여기서는 省略한다.

셋째, 『說文解字』에는 初期의 字形과 本義를 떠난 채 周易사상에 의하여 解釋한 부분이 相當하다. “始一終亥”라는 說과 540이라는 部首의 숫자 뿐만 아니라 始終一貫하게 陰陽五行說의 원리로 解說하고 있다. 陰陽五行說이란 세계를 構成하고 있는 木·火·土·金·水 5종의 요소가 推移하고 循環함을 가지고 宇宙萬物의 다양한 現象을 판단하고 豫測하고자 하는 哲學이다⁷⁾. 許慎은 經學家이었기에 文字의 形·音·義를 解說함에 있어서 실제를 떠나 哲學적인 이치로 說明하여 本義를 제대로 解釋하지 못하였다.

6) 陸宗達 著, 金權 譯, 『說文解字通論』, 啓明大學校出版部, 1994. p.344.

7) 阿辻哲次 著, 沈慶昊 譯 『漢字學 「說文解字」의 세계』, 以會文化社, 1996, p.19.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그 誤謬를 찾아볼 수 있다.

卷十四下の “七”部에서는 “陽之正也(陽의 바른 것이다), 微陰從中袞出也(微陰중에서 비껴 나오는 것이다)”라고 숫자도 陰陽五行說의 原理로 解說하고 있으니 荒唐하다. 甲骨文의 字形은 十로, 세로획으로 가로획을 “절단하다”라는 의미를 會意하고 있다. 許慎의 解說을 보고는 經學家가 아닌 이상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理解하기 어려울 것이다.

卷十四下の “戊”部에서 甲骨文의 字形은 𠄎로, 단순히 도끼모양의 兵器인데, 許慎은 “中宮也. 象六甲五龍相拘絞也. 戊承丁, 象人脅(中央이다. 마치 六甲중의 五龍이 서로 잡고 꼬여있는 形象을 그린 것이다. 戊는 丁 다음에 이어지며, 사람의 옆구리를 그린 것이다)”와 같이 모든 解說을 陰陽五行說에 依據하고 있으며 本義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았다.

본 論文의 제 3장에서는 甲骨文과의 比較를 통하여 『說文解字』의 誤謬들을 하나하나 分析하고자 한다.



Ⅲ. 『說文』 部首字의 誤謬에 관한 分析

『說文解字』의 540部首字 가운데서 筆者가 『甲骨文字典』(徐中舒 編)과 有關 甲骨文資料⁸⁾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甲骨文에서 單獨으로 쓰인 경우가 보이는 部首는 모두 370字이며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字들이다.

- 卷一上 001. 一 002. 上 003. 示 004. 三 005. 王 006. 玉 007. 珏
008. 气 009. 士
- 卷一下 011. 中 012. 艸 013. 蓐
- 卷二上 015. 小 016. 八 019. 牛 021. 告 022. 口 024. 田 026. 走
027. 止 029. 步 030. 此
- 卷二下 031. 正 033. 彳 034. 彳 036. 彳 037. 行 038. 齒 040. 足
041. 疋 042. 品 043. 龠 044. 冊
- 卷三上 046. 舌 047. 干 050. 南 051. 句 052. 卩 053. 古 054. 十
055. 市 056. 言 058. 音 059. 辛 062. 夂 065. 異 068. 鳳
- 卷三下 071. 鬲 073. 爪 074. 夂 075. 鬥 076. 又 077. 冫 078. 史
080. 聿 081. 聿 082. 畫 804. 叀 085. 臣 086. 殳 087. 殺
092. 支 093. 教 094. 卜 095. 用 096. 爻
- 卷四上 098. 曼 099. 目 101. 眉 103. 自 104. 白 107. 習 108. 羽
109. 隹 111. 萑 114. 羊 115. 義 118. 隤 119. 鳥
- 卷四下 121. 聿 122. 蕒 123. 彡 124. 彡 125. 彡 130. 奴 131. 夕
132. 死 133. 冎 134. 骨 135. 肉 137. 刀 138. 刃 139. 韌
140. 丰 141. 未 142. 角
- 卷五上 144. 箕 146. 左 147. 工 149. 巫 150. 甘 151. 白 152. 乃
154. 可 155. 兮 157. 亏 158. 旨 159. 喜 160. 壺 161. 鼓
163. 豆 164. 豐 165. 豐 167. 虍 168. 虎 169. 虺 170. 皿

8) 徐無聞 主編, 『甲金篆隸大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1,
馬如森, 『殷墟甲骨文引論』, 中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1993 등

172. 去 173. 血
 卷五下 175. 丹 177. 井 178. 皂 179. 鬯 180. 食 182. 會 183. 倉
 184. 入 185. 缶 186. 矢 187. 高 189. 牽 190. 京 191. 高
 194. 畜 195. 畜 196. 來 197. 麥 198. 父 201. 韋 202. 弟
 205. 桀
 卷六上 206. 木 207. 東 208. 林 209. 才
 卷六下 210. 蟲 211. 之 213. 出 214. 宋 215. 生 216. 毛 217. 夔
 224. 束 227. 員 228. 貝 229. 邑
 卷七上 231. 日 232. 旦 234. 𠂔 235. 冥 236. 晶 237. 月 238. 有
 239. 翻 240. 囧 241. 夕 242. 多 243. 冊 245. 彙 246. 鹵
 247. 齊 248. 束 249. 片 250. 鼎 251. 克 252. 泉 253. 禾
 254. 秝 255. 黍 256. 香 257. 米 259. 白
 卷七下 264. 赤 265. 耑 269. 宀 270. 宮 271. 呂 272. 穴 273. 癩
 274. 疒 277. 冂 279. 网 281. 巾 283. 帛 284. 白 286. 滯
 卷八上 287. 人 288. 匕 289. 匕 290. 从 291. 比 292. 北 293. 丘
 294. 亼 295. 壬 298. 身 299. 方 300. 衣 301. 裘 302. 老
 305. 尸
 卷八下 307. 尾 309. 舟 310. 方 311. 儿 312. 兄 313. 无 314. 兒
 316. 先 318. 見 320. 欠 321. 飲 322. 次 323. 兪
 卷九上 324. 頁 325. 頁 326. 面 327. 丐 328. 首 331. 彡 333. 文
 335. 后 336. 司 338. 冂 339. 印 340. 色 341. 卯 342. 辟
 343. 勺 344. 包 345. 苟 346. 鬼 347. 尪
 卷九下 350. 山 354. 厂 357. 石 358. 長 359. 勿 360. 丹 361. 而
 362. 豕 363. 豕 365. 豚 366. 豸 367. 豸 368. 易 369. 象
 卷十上 370. 馬 371. 鹿 372. 鹿 373. 麤 374. 麤 375. 兔 377. 犬
 378. 尪 382. 火 383. 炎 384. 黑
 卷十下 386. 焱 388. 赤 389. 大 390. 亦 391. 犬 392. 夭 393. 交
 395. 壺 397. 幸 402. 力 403. 夫 404. 立 405. 竝 406. 囟
 408. 心

卷十一上 410. 水 411. 林
 卷十一下 415. 川 416. 泉 418. 永 419. 𣎵 420. 谷 422. 雨 423. 雲
 424. 魚 426. 燕 427. 龍 429. 非
 卷十二上 432. 不 433. 至 434. 西 435. 鹵 437. 戶 438. 門 439. 耳
 卷十二下 443. 女 444. 毋 449. 氏 451. 戈 452. 戍 453. 我 457. 亡
 459. 匚 461. 𠂔 463. 弓 464. 弜 465. 弦 466. 系
 卷十三上 467. 糸 469. 絲 470. 率 471. 虫
 卷十三下 472. 虫 475. 它 476. 龜 477. 黽 479. 二 480. 土 482. 堇
 484. 田 485. 𠂔 486. 黃 487. 男 488. 力 489. 荔
 卷十四上 492. 勺 493. 几 494. 且 495. 斤 496. 斗 498. 車 499. 𠂔
 卷十四下 500. 阜 503. 四 504. 宁 506. 亞 507. 五 508. 六 509. 七
 510. 九 513. 甲 514. 乙 515. 丙 516. 丁 517. 戊 518. 己
 520. 庚 521. 辛 523. 壬 524. 癸 525. 子 529. 丑 530. 寅
 531. 卯 532. 辰 533. 巳 534. 午 535. 未 536. 申 537. 酉
 539. 戌 540. 亥



이밖에 『說文解字』의 540部首字 중 甲骨文에서 單獨으로 쓰인 경우는 보이지 않고 屬字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본 論文에서는 分量상의 제한으로, 위의 “甲骨文에서 보이는 部首” 370字에 대한 許慎의 解說에 대해서만 重點的으로 研究하려 한다.

1. 字形의 側面




1) 字形分析이 正確하지 않은 경우

『說文解字』의 540部首가운데서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部首” 370字 중 字形分析이 正確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大概가 初文을 보지 못하고 小篆에만 의하여 解說한 것이기에 그와 같은 誤謬를 범하게 된 것이다. 아래에 甲骨文과의 比較를 통하여 그 誤謬를 찾아보려 한다.


甲骨文的 字形에 根據하여 人體, 動物, 器物, 衣食住, 其他 등 다섯 가지 부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人體


 029. 步
行也。從止  相背。(薄故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두 개의 발을 그린 것인데, 좌우 양쪽 발이 전후로 서로 따라가는 것이므로 “나아간다”는 뜻이다. 許慎은 “從止  相背(止와  가 서로 등지고 있는 것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 字形分析은 正確하지 않다⁹⁾.

 046. 舌
在口, 所以言也、別味也。從干從口, 干亦聲。(食列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혀가 입(口)안으로부터 나온 것을 그렸다. 『說文』에서는 小篆에 의하여 “從干從口, 干亦聲(干과 口를 따르며, 干은 또한 聲이다)”라고 하여 形聲字로 分析한 것은 正確하지 않다¹⁰⁾.

 058. 音
聲也。生於心, 有節於外, 謂之音。 宮、商、角、徵、羽, 聲。 絲、竹、金、石、匏、土、革、木, 音也。從言含一。(於今切)

音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告, 舌, 言과 同一字¹¹⁾이며, 또 모두 口를 따르므로 許慎이 “從言含一”라 한 것은 小篆에만 의한 잘못된 分析이다.

9)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27.



10) 上揭書, p.41.

11)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222.



101. 眉


目上毛也。從目，象眉之形，上象額理也。(武悲切)

許慎은 “眉”의 小篆에서 위의 “八”에 대하여 “上象額理(위는 이마를 그린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甲骨文 字形은  혹은  로, 눈과 눈썹을 그린 것으로 위의 “八”은 눈썹이다. 許慎은 “八”와 “目”사이의 “丿”을 눈썹으로, “八”은 이마의 줄음을 그린 것으로 보고 “이마”라고 하였을 것이다.



213. 出


進也。象艸木益滋上出達也。(尺律切)

『說文』에서는 “象艸木益滋上出達(草木이 점점 자라 위로 나온 모양을 본뜬 것)”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자형은  로, 동굴을 뜻하는 “凵”과 발을 뜻하는 “之”의 會意字이며, 사람이 살던 동굴에서 나옴을 뜻한다¹²⁾. 許慎은 小篆의 字形이 草木이 땅에서 나오는 모습과 비슷하다고 하여 위와 같이 解說하였는데 根據 없는 것이다.



298. 身

躬也。象人之身。從人，尸聲。(失人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여자가 아이를 孕胎하여 배가 볼록한 형상이다¹³⁾. 甲骨文은 혹은 배속에 “子”나 점을 그린 것도 있는데 모두 배속에 아이가 있음을 나타낸 獨體象形이다. 許慎은 『說文』에서 “人”을 따르며, “尸”성이라 하였는데 이는 小篆에만 의한 解說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302. 老


考也。七十曰老。從人、毛、匕，言須髮變白也。(盧皓切)


12) 上掲書, pp.681~682.


13) 上掲書, p.931.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老人이 지팡이를 짚고 서있는 象形字이다. 『說文』에서는 “從人、毛、匕, 言須髮變白(인과 毛를 따르며, 匕를 따르는 것은 머리가 하얗게 변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 “老”가 小篆에서도 “늙다”의 뜻으로 쓰였고, 지팡이가 점차 匕(“匕”는 “化”의 初文)처럼 變化되었기에, 許慎은 위와 같이 解說하였는데 이는 억지주장에 不過하다.

 320. 欠
張口气悟也。象气從人上出之形。(去劔切)


『說文』에서는 “象气從人上出之形(공기가 사람 위로 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사람이 뿔어앉아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小篆에서는 사람의 입이 “彡”형태로 변화하였는데 許慎은 그것을 “气”字를 반대로 쓴 것으로 잘 못 보고 “象气從人上出之形”이라 하였으므로 正確하지 않다¹⁴⁾.


 322. 次
慕欲口服液也。從欠從水。(叙連切)



『說文』에서는 “次”字が “欠”과 “水”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사람의 입에서 타액이 밖으로 튕겨 나가는 모습으로, “부러워한다”는 뜻이다. 甲骨文에서는 타액을 表示하는 점들이 篆文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水”로 변화였다. 그러므로 “從欠從水”라 함은 許慎이 初文을 보지 못하였기에 범한 誤謬이다.



 324. 頁
頭也。從頁從儿。古文誦首如此。頁者, 誦首字也。(胡結切)


14)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235.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사람의 머리와 몸을 그린全體象形이다. 許慎은 『說文』에서 “首”와 “儿”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小篆에만 의한 잘못된 解說이다.



 326. 面
顏前也。從首，象人面形。(彌箭切)

『說文』에서는 “首”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首”의 甲骨文은  로, 사람의 머리부분을 그린 것이며, “面”의 甲骨文은  으로, 사람의 머리의 윤곽과 얼굴을 대표하는 기관인 눈을 그려 얼굴이라는 뜻을 나타낸 字로서 두 字는 모두 象形字이다. 許慎의 분석은 小篆의 字形에만 의한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338. 口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瑞信也。守國者用玉口，守都鄙者用角口，使山邦者用虎口，土邦者用人口，澤邦者用龍口，門關者用符口，貨賄用璽口，道路用旌口。象相合之形。(子結切)

甲骨文的 자형은  으로, 사람이 땅에 꿰어앉아 있는 形象이다. “象相合之形”이라함은 許慎이 “口”의 甲骨文 字形은 보지 못하고, 당시 使用되고 있던 뜻에 의하여 짜 맞춘 字形分析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342. 辟
法也。從口從辛，節制其罪也。從口，用法者也。(必益節)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처벌을 받는 形象인데 법의 위력을 나타내고 있는 글자이다. 金文에 이르러  과 같은 字形으로 變化되었는데, “o”이 추가되었으며 “o”은 璧을 그린 것이며, 여기서는 다만

符號로 쓰였다. 『說文』에서 “從口, 用法者也”라 한 것은 변화 된 이후의 자형을 보고 解釋한 것이며 또 둥근 玉을 그린 “o”을 입으로 보고 “법을 사용하는 자”라고 解釋하였는데 역시 主張에 不過하다.



 346. 鬼

人所歸爲鬼。從人，象鬼頭。 鬼，陰气賊害，從厶。(居偉切)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사람이 얼굴에 假面같은 것을 쓰고 앉아 있는 形象이다. 『說文』에서는 “象鬼頭(귀신의 머리를 그린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초기에는 鬼神을 그린 것이 아니며, 또 “厶”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에는 보이지 않는다.


 358. 長

久遠也。從兀，從匕。兀者，高遠意也。久則變化。𠄎聲。𠄎者，𠄎倒也。(直良切)

『說文』에서는 “從兀，從匕”라고 하였지만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사람의 발과 긴 머리를 그린 것이며, “兀”과 “匕”를 따르지 않는다. 金文에서 와 같이 變하여 小篆과 비슷하게 되었는데 許慎은 變化된 以後의 篆文을 보고 分析하였으니 正確하지 않다.

 403. 夫


丈夫也。從大，一以象簪也。周制以八寸爲尺，十尺爲丈。人長八尺，故曰丈夫。(甫無切)

『說文』에서는 “從大，一以象簪(大를 따르며, 一은 비녀의 모습)”이라고 하였는데,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정면으로 서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것이며, 一은 大와 區別하기 위한 符號일 뿐인데 許慎은 그것을 “비녀”로 보았다¹⁵⁾.



429. 非

違也。從飛下翅，取其相背。(甫微切)


『說文』에서는 “從飛下翅，取其相背(飛 아래의 날개를 따르며, 서로 등진 형상을 취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飛”와 “非”의 小篆이 유사하고 발음(甫微切)도 같은데서 나온 말일 것으로 생각된다.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사람이 서로 등지고 있는 形象이다. 그러므로 許慎의 字形分析은 正確하지 않다.

(2) 動物



142. 角


獸角也。象形。角與刀、魚相似。(古岳切)

甲骨文 字形은 으로, 動物 鬚의 形象이며 小篆과는 字形이 다르다. 春秋時代의 石鼓文에 이르러 小篆의 형태와 비슷하게 변하였다. 許慎이 “角與刀、魚相似(角과 刀, 魚는 비슷하다)”고 한 것은 小篆 윗부분의 形態가 “刀”의 小篆과 비슷하고, 아랫부분은 “魚”의 小篆과 비슷한 것을 보고 한 말이므로 잘못된 分析이며 쓸모 없는 말이다¹⁶⁾.



167. 虎

虎文也。象形。(荒烏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호랑이의 예리한 이발을 特徵으로 한 머리부분을 그린 것이다. 許慎은 “虎文(호랑이 무늬)”라고 하였으나 小篆을 봐도 호랑이 무늬는 아니다. 그러므로 『說文』의 해석은 根據 없는 것이다.


15)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290~291.

16) 上揭書, p.110.



168. 虎


山獸之君。從虍，從儿。虎足象人足。象形。(呼古切)

『說文』에서는 “虎”가 “虍”와 “儿”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호랑이를 그린 全體象形이다. 또한 “虎足象人足(호랑이 발은 사람 발과 비슷하다)”고 한 解說은 小篆의 字形만을 보고 分析하여 범한 誤謬이다.



366. 豸


獸長脊，行豸豸然，欲有所司殺形。(池爾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猛獸가 입을 벌리고 있는 形象이며, 肉食동물을 가리킨다. 許慎은 『說文』의 蟲部(473)에서 “발이 있는 動物을 蟲이라 하고, 발이 없는 動物을 豸라 한다”고 하였는데 서로 뒤바뀐 것이다. “行豸豸然”이라고 한 것은 “발이 없는 동물”로 解析하여 범한 誤謬라고 생각된다.



372. 鹿

獸也。象頭、角、四足之形。鳥、鹿足相似，從匕。(盧谷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사슴을 그린 것이다. 『說文』에서 “鳥、鹿足相似(새와 사슴은 발이 서로 비슷하다)”고 하였지만 이는 許慎이 小篆의 字形만 보고 分析한 誤謬이다¹⁷⁾. “從匕(匕를 따른다)”고 한 것 역시 許慎이 사슴의 발을 “匕”로 착각하여 分析한 誤謬이다.



427. 龍

鱗蟲之長，能幽能明，能細能巨，能短能長，春分而登天，秋分而潛淵。從肉，飛之形。童省聲。(力鍾切)


17) 上掲書, p.272.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龍의 形象이다. 春秋時代에 이르러 과 같은 形態로 變化되었다. “彡”은 신체부분을 장식한 것인데 許慎은 “나는 형상”으로 잘못보고 해석하였는데 정확하지 않다¹⁸⁾. 『說文』에서는 “從肉，飛之形(肉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에서는 “肉”을 따르지 않는다.



476. 龜

舊也。外骨內肉者也。從它，龜頭與它頭同。天地之性，廣肩無雄，龜鱉之類，以它爲雄。象足甲尾之形。(居迫切)



甲骨文的字形은 로, 거부기의 측면을 그린 全體象形이다. 『說文』에서는 “它”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的字形에는 보이지 않으므로 이는 許慎이 小篆만 보고 解釋하여 범한 誤謬이다.



477. 鼃

鼃鼃也。從它，象形。鼃頭與它頭同。(莫杏切)



『說文』에서는 “鼃”도 “它”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鼃”의 甲骨文的字形은 이고, 金文的字形은 으로, 큰 머리에 큰 배, 네 개의 발을 가진 개구리를 그린 獨體象形이며 “它”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許慎은 小篆의 자형이 “它”와 비슷하여 “從它”라 하였는데 이는 잘못된 解釋이다¹⁹⁾.

(3) 器物





078. 史

記事者也。從又，持中。中，正也。(疏士切)

18)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307.


19) 上揭書, p.341.

甲骨文 자형은 으로, 손에 사냥기구를 들고 있는 형상이다. “中”의 甲骨文 자형은 으로, “史”에서 손에 든 武器와는 다른 形態인데 『說文』에서는 “從又, 持中(又(손)로 中을 받든 것을 따른다)”고 하였으니 正確하지 않다. 옛날에는 사냥이 일어났으므로 事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²⁰⁾. 許慎의 字形解說是 甲骨文을 보지 못하였기에 범한 誤謬라 하겠다.



086. 投


以投殊人也。『禮』“投以積竹，八觚，長丈二尺，建於兵車，旅賁以先驅”。從又，几聲。(市朱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손에 武器를 들고 있는 形象이며 손에 들고 있는 것은 마땅히 “投”이다. 손에 든 창이 小篆에서는 “几”로 變化되었는데 許慎은 그 變化과정을 모르고 “几聲”을 따른다고 하였으니 正確하지 않다²¹⁾.



139. 切

巧切也。從刀，丰聲。(恪八切)

甲骨文的 자형은 으로, 칼로 문양을 새긴 會意字이며, “丰”은 그 무늬를 뜻하는 것이다²²⁾. 『說文』에서는 “從刀，丰聲(刀를 따르며, 丰성이 다)”와 같이 形聲字로 풀이한 것은 正確하지 않다.




141. 耒

手耕曲木也。從木推丰。古者垂作耒耜，以振民也。(盧對切)

20)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316.

21)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71.


22) 上揭書, p.108.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밭갈이하는 農器具를 그린 獨體象形이다. 『說文』에서는 “從木推丰(木으로 丰을 미는 것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許慎이 小篆의 字形에만 의하여 解釋하여 범한 잘못이다.



144. 箕


籒也。從竹， 象形。下其丌也。(居之切)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초기에는 箕의 모양을 그린 象形字였으나 小篆에 와서는 대나무로 만들어 졌다는 뜻으로 “竹”을 첨가하고, “丌”의 소리를 첨가하여 形聲字로 변화되었다. 許慎이 『說文』에서 “從竹, … 下其丌”라 한 것은 甲骨文을 보지 못하고 分析한 誤謬이다.



160. 壺




陳樂，立而上見也。從中，從豆。 (中句切)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樂器인 壺을 그린 象形字이며 위의 “中”은 壺을 裝飾한 부분이다. 『說文』에서 “中”과 “豆”를 따른다고 한 字形分析은 小篆에만 依據한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164. 豊

行禮之器也。從豆，象形。讀與禮同。(盧啓切)


甲骨文 字形은  으로, 壺()에 옥()을 장식한 形象이다. 『說文』에서는 “豆”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에서는 “豆”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壺”를 따른다. 그러므로 許慎의 字形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179. 鬯


以秬釀鬱艸，芬芳攸服，以降神也。從凵，凵，器也。中象米，匕，所

以扱之。『易』日不喪匕鬯。(丑諒切)



許慎은 “鬯”字의 字形을 풀이함에 있어서 “匕”을 따르며, 容器 속의 ※은 “米”라고 하였는데,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술 容器를 그린 것이며 그릇 안에 鬱金酒가 가득 차 있는 것을 의미한다²³⁾. 그러므로 許慎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186. 矢

弓弩矢也。從入，象鏑栝羽之形。古者夷牟初作矢。(式視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화살을 象形한 것인데 許慎은 화살촉을 “入”으로 오해하여 “入”을 따른다고 하였다²⁴⁾. 또한 整體象形이므로 “從入，象鏑栝羽之形”과 같이 分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214. 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艸木盛木末然。象形，八聲。讀若輩。(普活切)

『說文』에서는 “草木이 무성하게 자라 가지와 잎이 바람에 흩어진 形象”라고 하였으나, 甲骨文 字形은 으로, 草木의 形象이 아니라, 

 279. 网

庖犧所結繩以漁。從冂，下象网交文。(文紡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그물을 그린 獨體象形이다. 『說文』에서는 “冂”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이는 許慎이 甲骨文은 보지 못하고 小篆에만 의

23)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138.


24)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581.

하여 解釋한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433. 至


鳥飛從高下至地也。從一，一猶地也。象形。不上去，而至下來也。
(脂利切)

甲骨文的 字形은 로, 羅振玉은 “화살이 멀리에서 날아와 땅에 꽂히는 형상”으로 解釋하고 있다. 『說文』에서는 “鳥飛從高下至地(새가 높은 곳에서 땅으로 날아 내리는 형상)”으로 보고있으나, 새의 모습이 아니므로 根據 없는 解說이다.



451. 戈



平頭戟也。從弋，一橫之。象形。(古禾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商周시대의 兵器인 창을 그린 全體象形이다. 許慎의 “從弋，一橫之”는 小篆에만 의한 잘못된 字形分析이다.



452. 戍

斧也。從戈，丩聲。『司馬法』曰：夏執玄戍，殷執白戍，周左杖黃戍，右秉白髦。(王伐切)


『說文』에서는 “戈”를 따르며 “丩聲”이라고 하였지만,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자루가 긴 도끼를 그린 獨體象形이다. 金文은 으로, 앞은 창이고 옆에는 도끼가 있는 兵器의 형태이다. 도끼의 자루부분이 金文에 와서 戈와 같이 변하고, 날 부분인 c가 小篆에 와서는 l로 변하였는데 許慎은 變化된 以後의 字形을 分析하고 있으니 正確하지 않다. 今字는 金部를 추가하여 鉞로 쓰고 있다²⁵⁾.

25) 上揭書, p.1377.



494. 几


薦也。從几，足有二橫，一其下地也。(子余切。又，千也切)

甲骨文的字形은 로, 先祖에게 제를 지낼 때 고기를 올려놓는 器具이며 先祖라는 “祖”의 初文이다. 『說文』에서는 “從几，足有二橫，一其下地(几를 따르며, 다리에 두 개의 가름대가 있으며, 一은 그 아래의 땅)”이라고 字形分析을 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解釋이다.



532. 辰

震也。三月。陽氣動，雷電振，民農時也。物皆生，從乙、匕，象芒達，
厂聲也。辰，房星，天時也。從二，二，古文上字。(植鄰切)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古代의 農業勞動에서 草木을 베는 一種의 農器具를 그린 것이다. 『說文』에서는 “從乙、匕，象芒達，厂聲…從二，二，古文上字(乙을 따르며, 匕는 마치 까끄라기가 자라는 것 같고, 厂은 聲이다. … 二를 따르는데, 二는 高문 上이다)”라고 陰陽五行說을 곁들여 深奧하게 解說하고 있으나, 初文은 단순히 草木을 베는 農器具일 뿐 이는 經學家인 許慎에 의하여 부여된 哲學觀念이다.

(4) 衣食住



123. 幺

小也。象子初生之形。(於堯切)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說文』에서는 “幺”의 字形을 “象子初生之形(갓난아이의 형상)”이라고 하였으나, 사실은 작은 실 묶음을 그린 것이다²⁶⁾. 許慎의 解說은 小篆에만 의한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26)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99.



150. 甘


美也。從口，含一。一，道也。(古三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小篆과 같으나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씹어 맛 보는 뜻으로 “一”은 단지 입안의 음식물을 뜻이다. 『說文』에서 “一은 道”라고 하였는데, 이는 許愼에 의하여 부여된 哲學 思想이므로 따를 바가 못 된다.



158. 旨


美也。從甘，匕聲。(職雉切)

『說文』에서는 “甘”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甲骨文은 “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口”를 따르는 와 같은 형상이다. 許愼은 甲骨文을 보지 못하고 小篆에만 의하여 解說하였기에 이와 같은 誤謬를 범하게 된 것이다.



183. 倉



穀藏也。蒼黃取而藏之，故謂之倉，從食省，口象倉形。(七岡切)


許愼은 “倉”이 “從食省，口象倉形(‘食’에서 생체 되었으며, 아래의 ‘口’는 창고의 형태)”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食”字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와 같은 형태로, 마치 창고에 문이 달려 있는 모습과 같은 象形字인데, 위는 창고의 지붕이고, 가운데는 문이며, 아래는 그 기초와 같다. 許愼은 “倉”과 “食”의 小篆이 비슷한 것을 보고 위와 같이 解釋한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187. 高

崇也。象臺觀高之形。從門、口，與倉舍同意。(古牢切)

『說文』에서는 “冂”과 “口”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 자형은  로, “冂”은 높은 땅을 의미하고, “口”는 거주하는 동굴을 가리키며,  은 위에 가린 물건과 층계를 나타낸 象形字이다²⁷⁾. 그러므로 會意字로 解析한 許慎의 說은 正確하지 않다.


189. 度 

度也，民所度居也。從回，象城郭之重，兩亭相對也。或但從口。(古博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가운데 거주하는 동굴을 뜻하는 口가 있고, 위 아래에 층계와 덮은 물건이 있는 象形字이다. 甲金文에서는 가운데가 모두 “口”형이며, 戰國時代에 이르러서야 “口”가 “回”로 변하였으니 “回”를 따른다고 한 許慎의 字形分析은 正確하지 않다²⁸⁾.

194. 倉 


穀所振入。宗廟粢盛，蒼黃倉而取之，故謂之倉。從入，回象屋形，中有戶牖。(力甚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마치 두개의 큰 돌 위에 나무 가름대를 놓고 곡식을 쌓아 두는 창고의 모양과 같다²⁹⁾. 『說文』에서는 “從入，回象屋形，中有戶牖(入을 따르며 回는 건물 모양이며, 가운데에 창문이 있는 형태)”라고 분석하였으나, 이는 許慎은 變化된 以後의 字形으로 分析한 것이므로 따를 바가 못된다.

256. 香 

芳也。從黍，從甘。『春秋傳』曰：黍稷馨香。(許良切)


27)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590.
 28)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146.
 29)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609.

『說文』에서는 “黍”와 “甘”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은  와 같은 자형으로, “甘”이 아닌 “口”를 따른다. “口”는 그릇의 形態로 黍가 가득한 그릇을 말하며, 그로써 향기롭다는 뜻을 나타낸다³⁰⁾. 許慎의 “從黍, 從甘”이라는 解釋은 小篆에만 의한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277. 冂



小兒蠻夷頭衣也。從冂，二其飾也。(莫報切)

甲骨文 字形은  으로, 于省吾는 “양의 빨로 장식한 帽子的 형태”라고 하였다³¹⁾. 그러므로 『說文』에서 “從冂，二其飾(冂을 따르며, 二는 裝飾한 것)”이라고 한 解析은 小篆에만 의한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286. 蓐


箴縷所紘衣。從蓐， 省。(陟几切)

『說文』에서는 “蓐”을 따르며, “”을 省體한 것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 骨文의 字形은  으로, 실로 옷에 꽃무늬를 수놓은 형상이다. 戰國時代에 와서 자형이 점차 小篆과 비슷하게 變하였는데³²⁾ 許慎은 變化된 以後의 字形으로 解說하였으니 正確하지 않다.



300. 衣

依也。上曰衣, 下曰裳。象覆二人之形。(於稀切)

甲 骨文의 字形은  로, 羅振玉은 “옷깃으로 좌우를 감싸 덮은 형상”이라고 하였다³³⁾. 실제로 甲 骨文과 小篆의 자형은 비슷하며, 모두 팔이 짧은

17) 上揭書, p.791.

31) 上揭書, pp.850~851.

32)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210~211



33)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933.

옷을 그린 것으로 보인다. 許慎은 아랫부분을 두 개의 “人”으로 보고 “象覆二人之形(두 사람을 덮은 형상)”이라고 하였는데 正確하지 않다.



301. 裘

皮衣也。從衣，求聲。一曰象形，與衰同意。(巨鳩切)

『說文』에서는 “從衣，求聲(이를 따르며, 求성)”이라고 하였는데, 甲骨文 자형은  로, 털이 곁에 드러난 가죽옷을 그린 것이다. 西周의 金文에서는  와 같이 “又”聲을 추가하여 形聲字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又”聲을 “求”聲으로 고쳤다³⁴⁾. 許慎은 變化된 以後의 字形을 解釋하고 있으므로 “從衣，求聲”은 잘못된 分析이다.




435. 鹵

西方鹹地也。從西省，象鹽形。安定有鹵縣。東方謂之虜 西方謂之鹵。

(郎古切)




『說文』에서는 “西”가 省體된 것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소금을 담은 꾸러미의 모양의  이다. 가운데의 점들은 소금을 뜻한다. 字形상에서 “西”와 비슷하지만 “西”와는 관련이 없고 또 “西”를 생략한 것을 따르는 것도 아니므로 許慎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466. 系


繫也。從糸，丿聲。(胡計切)


『說文』에서는 “糸”를 따르며, “丿聲”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손으로 두 개의 실마리를 들고 있는 形象이다. 小篆의 “丿”은 甲骨文的 “丩”가 變化된 것인데 許慎은 “丿”을 聲部로 보고 있으니 잘못된 分析이다.


34)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221~222.


(5) 其他


 015. 小
物之微也。從八，丨。見而分之。(私兆切)

『說文』에서는 “從八，丨(八과丨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甲骨文的字形은  혹은 네 개의 점으로, 작다는 것을 표시한 會意字이다. 『說文』에서는 또 “見而分之(글씨를 보면 양쪽으로 나눈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小篆에만 의한 잘못된 字形分析이다. 후에 세 점으로 된 것은 小로, 네 점으로 된 것은 少로 분화되었는데 小는 작다는 뜻을, 少는 적다는 뜻을 지니게 되었다³⁵⁾.

 034. 彳
小步也。象人脛三屬相連也。(丑亦切)

三屬이란 上股, 中脛, 下足を 말한다. 甲骨文을 고찰해 보면 “彳”은 “行”의 左半部인  이므로 역시 길을 象形한 것이다. 『說文』에서는 小篆의 세 개의 획을 각각 “허벅지, 정강이, 발”을 그린 것으로 보고 “象人脛三屬相連(사람의 三屬이 연결된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小篆에만 의하여 解釋한 誤謬이다³⁶⁾.

 096. 爻
交也。象『易』六爻頭交也。(胡茅切)

甲骨文的字形은  로 교차된 모습이며 小篆과 같다. 『說文』에서 “六爻頭交”라 한 것은 經學家인 許慎에 의하여 『周易』사상으로 解釋한 것이

35) 李徹, 「說文部首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民國76年, pp.11~12.


36)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31.

므로 따를 바가 못된다.



231. 日



實也。太陽之精不虧。從口一，象形。(人質切)

『說文』에서는 “太陽之精不虧(태양의 빛이 이지러지지 않음)”이라고 하였는데, 甲骨文 字形은 로 가운데 一을 가한 것은 “圓”의 初文 “○”와 구별하기 위한 것이지 태양의 빛이 이지러지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다³⁷⁾. 王筠은 『說文釋例』에서 “‘從口一’ 세 글자는 衍文이다. ‘日’자는 全體象形이다. 만일 ‘從口一’이라면, 會意字가 된다.”고 하여 許慎의 解析을 否定하였다.



232. 旦

明也。從日見一上。一，地也。(得案切)

『說文』에서는 “從日見一上。一，地也(日이 一 위에 있는 것을 따르는데, 一은 땅)”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 字形은 이고 金文은 으로, 日의 아래의 것은 태양의 그림자이지 땅이 아니다³⁸⁾. 小篆은 “日”과 “一”로 이루어 졌고, 또 위의 “一”은 하늘을, 밑의 “一”은 땅을 표시하는 것이 다수이므로 許慎은 땅이라고 解釋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許慎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234. 旂

旌旗之游，旂 蹇之兒。從中，曲而下；垂旂，相出入也。讀若偃。古人名旂字子游。(於轆切)

許慎은 “中”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마치 깃발

37)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175.


38)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730.

의 대와 깃발이 나뉠 기는 형태와 같으며 “屮”의 形態는 보이지 않는다.
許慎의 字形 解說은 小篆에만 의한 分析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293. 丘

土之高也。非人所爲也。從北從一，一，地也。人居在丘南，故從北。
中邦之居在岷崙東南。一曰四方高中央下爲丘。象形。(去鳩切)



『說文』에서는 “從北從一，一，地(北과 一을 따르며, 一은 땅)”이라고 하였지만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언덕이 높이 솟아 있는 形象이며³⁹⁾ “北”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다. 徐中舒는 “사람이 사는 동굴인데 양 側面이 높고 가운데의 出入하는 부분이 낮은 형상”이라고 하였다⁴⁰⁾. 小篆에서는 “人”이 등진 모습으로 보이니 許慎은 “北”으로 생각하고 위와 같이 解說하였을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357. 石

山石也。在厂之下，口象形。(常隻切)




甲骨文의 字形은  혹은 으로, 돌을 象形한 것이며 “厂”과 同一字이다. 『說文』에서는 “在厂之下，口象形(厂的 아래에 있으며, 口는 돌을 그린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小篆의 字形에만 의한 誤謬를 범하였다.



422. 雨


水從雲下也。一象天，冂象雲，水霝其間也。(王矩切)


『說文』에서는 “一象天，冂象雲(一은 하늘을 뜻하고, 冂은 구름을 뜻한다)”고 하였는데 甲骨文의 字形은 로,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윗부분의 一은 하늘을 뜻하는 것인데 점차 빗방울과 이어

39)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216.


40)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924.

졌고, 나중에는 위에 一을 추가하여 小篆과 같은 字形으로 변화였다. 許慎은 “하늘과 빗방울”이 이어져 形成된 “凵”를 구름과 같다고 解釋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⁴¹⁾.

 423. 雲
山川气也。從雨，云象雲回轉形。(王分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구름이 하늘에 떠있는 모습을 뜻하는 會意字이다. “二”는 上空을 뜻한다. 云과 발음은 같고 글자가 없는 “이르다”라는 말이 있었으니 “云”은 그 의미로 假借되고 “云”에 “雨”部를 첨가하여 小篆과 같이 “雲”자를 만들어 “구름”의 뜻을 부여하였다. 『說文』에서는 “雨를 따르며, 云은 구름이 회전한 형상이다”와 같이 나중에 생긴 글자를 解釋하고 있으니 正確하지 않다⁴²⁾.

 480. 土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地之吐生物者也。二象地之下、地之中，物出形也。(它魯切)

『說文』에서는 “二象地之下、地之中，物出形也(二는 땅 밑과 땅 속과 같고, 丨은 생물이 나오는 형상)”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땅위에 흙덩어리가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며 生物이 나오는 形象이 아니다. 그러므로 許慎의 해설은 小篆에만 근거한 잘못된 字形分析이다.



위에서 人體, 動物, 器物, 衣食住, 其他 등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본 바와 같이 『說文解字』중의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部首”에서 字形分析이 잘못된 것은 모두 66字로, 人體에 關聯된 字形에 대한 誤謬는 17字, 動物에 關聯된 것은 8字, 器物에 關聯된 것은 16字, 衣食住에 關聯된 것은 14字이며 其他 部首의 字形分析에 대한 誤謬는 11字이다.



41)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中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p.304.



42) 段玉裁, 『說文解字注』,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88, p.575.



2) 甲骨文에서는 同一字 혹은 異體字인 경우


『說文』 540 部首중 甲骨文에서는 同一字 혹은 異體字인데, 許慎이 서로 다른 部首로 잘못 分類한 경우가 있으니 다음과 같은 字들이다.



1) “王”<005>과 “士”<009>의 甲骨文은  혹은  와 같이 모두 자루가 없는 도끼의 形象으로 權力的 상징인 兵器이다. 同一字였으나 金文에 와서는 字形이 분리되었다. 制字 당시에는 단순한 도끼를 그린 것이었으나 許慎에 의하여 哲學的인 概念이 주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2) “告”<021>와 “舌”<046>, “言”<056>, “音”<058>의 甲骨文은 ,  등과 같은 형태로 모두 同一字이다⁴³⁾. 小篆에 와서 자형이 분리되어 각자의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이다.

3) “走”<026>와 “夭”<392>의 자형은 모두  이다. 『說文』에서는 “屈(구부러진 것)”이라 하여 “傾頭(사람의 머리가 기울어진 형상)”으로 보고 있으나 “夭”<391>의 甲骨文  이 “머리가 기운 사람”을 그린 것이며, “走”와 “夭”는 “뛰어가다”는 뜻의 同一字이다⁴⁴⁾.

4) “正”<031>과 “足”<040>의 甲骨文 字形은 모두  으로 “口”는 목적지를 뜻하고 “之”는 “목적지를 향해 걸어간다”는 뜻이며 두 字는 同一字이다⁴⁵⁾. “足”을 “人之足(사람의 발)”이라고 하였으나, “疋”의 甲骨文  이 “足”의 本字이므로 “足”部를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5) “辵”<33>와 “辵”<036>의 甲骨文은 모두  으로 옛날에는 同一字였다⁴⁶⁾. 許慎은 그 字源을 모르고 각각 部首로 세운 것 같다.

6) “彳”<034>과 “行”<037>의 甲骨文은 각각  과  이며, 모두 길을 뜻하는 글자이다. 甲骨文에서 “行”은 생략하여 左半部 혹은 右半部만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자는 실제로는 同一字이다.

43)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228.

44)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283~284.

45)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193.

46) 上揭書, p.180.

7) “𠄎”<059>와 “辛”<521>의 甲骨文 자형은 모두 𠄎로, 古代에 墨刑을 행할 때 사용하는 새김칼의 형상이며 두 字는 同一字이다⁴⁷⁾.

8) “聿”<080>과 “聿”<081>의 甲骨文은 모두 聿인데, 손으로 새김칼을 잡고 있는 자형으로 同一字이며 “筆”의 初文이다⁴⁸⁾.

9) “自”<103>와 “白”<104>의 甲骨文 자형은 𠄎와 𠄎으로 코를 그린 同一字인데, 許愼은 “白”의 解說에서 “此亦自字(이 또한 ‘自’字이다)”라고 하면서도 서로 다른 部首를 세웠으니 矛盾된다.

10) “隹”<109>의 甲骨文 자형은 隹이고, “鳥”<119>는 甲骨文은 鳥로 繁簡의 차이가 있으나 모두 새를 그린 것으로 同一字이다. 許愼은 “隹”에 대해서는 “鳥之短尾總名”이라 하고 “鳥”에 대해서는 “長尾禽總名”이라고 해설한 것은 강제로 分別시켜 놓기 위한 것이다⁴⁹⁾.

11) “𠄎”<123>과 “午”<534>의 甲骨文은 모두 𠄎형으로, 실 묶음의 형상이며 甲骨文에서는 同一字였다. 실을 교차되게 묶은 形象이므로 “午(교차되다, 거역하다)”는 뜻으로 假借되었다⁵⁰⁾.

12) “矢”<186>와 “寅”<530>의 甲骨文 자형은 모두 矢으로, 화살을 그린 것으로 초기에는 同一字였다. “矢”와 구별하기 위하여 “口”를 추가한 矢와 같은 형태로 변화시켜 “寅”字가 되었다⁵¹⁾.

13) “東”<207>과 “束”<224>의 甲骨文은 각각 束과 束으로, 繁簡의 차이가 있는 “꾸러미를 묶다”라는 뜻의 同一字이다. 『說文』에서 “束”의 假借義를 해설하고 있는 것은 許愼이 初期의 文字를 보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14) “宀”<269>과 “穴”<272>의 甲骨文은 모두 宀로 사람이 사는 집을 뜻하는 同一字이다. 金文에 와서 “穴”의 자형이 “宀”과 구별되었으므로 許愼은 두 字로 보고 각각 部首를 세웠을 것이다.


47) 上掲書, pp.1561~1562.


48)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67~68.



49)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427.




50)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388.

51)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p.1585~1586.


15) “人”<287>과 “儿”<311>은 甲骨文 字形은  으로, 서있는 사람의 측면을 그린 同一字이다. 許慎은 字形에서 밑에 오는 部首를 “儿”으로 하여, “人”과 區別시켰는데 잘못된 것이라 생각된다.



16) “从”<290>과 “比”<291>, “俛”<294>의 甲骨文은  혹은 그 반대거나 혹은 세 개의 人을 따르기도 하는데, 甲骨文中에서는 正反之 區別이 없으며 같은 것을 두 개 이상 반복한 것은 同一字이므로 이 세 字는 “서로 따라간다”는 뜻의 同一字이다⁵²⁾.



17) “身”<298>의 甲骨文은  이고 “身”<299>의 甲骨文은  인데, 甲骨文中에는 正反之 區別이 없으므로 이 두 字는 “人體”를 가리키는 同一字이다.




18) “頁”<324>의 甲骨文은  이고, “頁”<325>의 甲骨文은  이며, “首”<328>의 甲骨文은  인데 모두 머리를 뜻하는 것으로 異體字⁵³⁾으로 部首를 하나만 세워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19) “厂”<354>과 “石”<357>의 甲骨文은 모두  으로, 돌을 그린 것이는데 실제로는 同一字이다⁵⁴⁾.

20) “大”<389>와 “大”<402>는 자형이 모두  으로, 서 있는 사람의 정면을 그린 同一字이다. 許慎은 “402部”에서 “大, 籀文大”라고 하면서도 각각의 部首를 세웠으니 矛盾된다.

21) “永”<418>의 甲骨文은  이고, “永”<419>은  인데, “혜엄치다”라는 뜻의 異體字이다⁵⁵⁾.

22) “虫”<471>의 甲骨文은  이고 “它”<475>의 甲骨文은  인데, 모두 뱀을 그린 것이며, 簡繁의 차이가 있지만 실제로는 同一字였으나 許慎이 두 字로 誤分한 것으로 보인다.

23) “戊”<452>의 甲骨文 자형은  이고, “戊”<517>의 甲骨文은  이며, “戊”<539>의 甲骨文은  인데, 모두 자루가 있는 도끼모양의 兵器를 그


52) 上揭書, p.920. p.926.

53)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239.

54)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1031.

55)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302.

린 것이며, 字形 상에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실제로는 同一字라고 생각된다⁵⁶⁾.

24) “子”<525>와 “巳”<533>의 甲骨文 자형은 으로, 모두 아기를 그린 것으로 실제로는 同一字이다⁵⁷⁾.


甲骨文에에 의하여 考察한 結果, 『說文解字』의 540개 部首 가운데서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370部首字” 중 同一字 혹은 異體字인 경우는 24가지이며 그 속에 포함된 部首字는 모두 53字이다.

2. 字義의 側面


1) 字義解釋이 正確하지 않은 경우

『說文解字』의 部首의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部首” 370字 중에서 字形 分析이 잘못 된 것도 많지만 字義解釋이 正確하지 않은 것도 적지 않다. 人體, 動物, 其他 등 세 부분으로 나누어 그 誤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人體

 031. 正

是也。從止，一以止。古文正從二，二，古上字。(之盛切)

甲骨文 자형은 으로, “口”는 目的地를 의미하며 “止”는 目的地를 향해 걸어간다는 뜻으로서 “征”의 初文이다⁵⁸⁾. 『說文』에서는 “是(‘옳다’라는 뜻)”으로 해설하고 있으나 이는 本義가 아닌 引申義이다. 甲骨文에서의 “口”는 書寫상의 便宜를 위하여 점차 “一”로 變化되었다.

56) 李徹, 「說文部首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民國76年, p.366.

57)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1571.

58) 上揭書, p.28.



040. 足

人之足也。在下。從止、口。(卽玉切)

『說文』에서는 “人之足(사람의 발)”이라고 하였는데, 甲骨文의 字形을 보면 𠂔 으로, 正(𠂔)字와 字形이 같다. 그러므로 本義는 “目的地를 향하여 걸어간다”는 뜻이지 “사람의 발”은 아니다. 甲骨文에서는 “疋”(𠂔)이 “足”의 本字이다.



290. 从

相聽也。從二人。(疾容切)

甲骨文의 字形은 𠂔 으로, 두 사람 혹은 세 세 사람이 서로 따라가는 형상인데 “따라가다”가 本義이다. 『說文』에서 “서로 듣다”라고 한 것은 本義가 아닌 引申義이다⁵⁹⁾.



299. 反

歸也。從反身。(旁陌切)

甲骨文의 字形은 𠂔 으로 “身”을 반대로 그린 것인데, 甲骨文에서는 正反의 구별이 없으므로 두 字는 同一字이다. 즉 本義는 사람의 몸을 가리킨다. 許慎이 『說文』에서 “歸(돌아가다)”라고 한 것은 “身”과 방향이 상반되는 것을 보고 나름대로 解說하여 그와 같은 誤謬를 범한 것으로 생각된다.



343. 匍

裹也。象人曲形。有所包裹。(布交切)

甲骨文의 字形은 𠂔 으로, 사람이 엎드려 있는 측면 모습이며 “伏”의 初文이다. 『說文』에서 “裹(꾸러미)”라고 한 것은 本義가 아닌 假借義이


59)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916.

다60).



344. 包


象人裹妊，巳在中，象子未成形也。元气起於子。子，人所生也。男左行三十，女右行二十，俱立於巳，爲夫婦。裹妊於巳，巳爲子。十月而生，男起巳至寅，女起巳至申，故男年始寅，女年始申也。(布交切)

『說文』에서는 “元气起於子…男左行三十，女右行二十(원기는 子에서 인다…남자는 子에서 左行하여 30번째 자리, 여자는 右行하여 20번째 자리…)”등등의 陰陽五行說로 解釋하고 있으니 믿을 바가 못된다.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배속에 胎兒가 있음을 뜻한다.



388. 赤




南方色也。從大，從火。(昌石切)

『說文』에서는 “南方色”(남방의 색)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陰陽五行說에 따른 것이므로 정확하지 않다. 甲骨文의 字形은 인데, 사람이 불 혹은 “山”위에 서있는 모습으로, 赤色은 本義가 아닌 假借義이다.



525. 子

十一月。陽氣動，萬物滋，人以爲偁。象形。(卽里切)

『說文』에서 “十一月. 陽氣動, 萬物滋(11월을 뜻한다. 양기가 발동하여 만물이 번식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陰陽五行說에 근거하여 解說한 것이므로 믿을 바가 못된다. 甲骨文의 字形은 혹은 혹은 등 형태가 다양한데, 모두 嬰兒의 形象을 그린 것이다.


60) 于省吾, 『甲骨文字釋林』, 中華書局, 1979, p.374.

(2) 動物



108. 羽


鳥長毛也。象形。(王矩切)

『說文』에서는 “鳥長毛(새의 긴 털)”이라고 자의를 해설하고 있지만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날개의 모양을 그린 것이며, 긴 털을 그린 것이 아니다. 『說文』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109. 隹


鳥之短尾總名也。象形。(職追切)

甲骨文的 자형은 으로, 새를 그린 것인데, 『說文』에서는 “鳥之短尾總名(꼬리가 짧은 새를 총칭)”이라고 하였다. 羅振玉은 “‘隹’와 ‘鳥’는 옛날에는 同一字로서 획이 복잡하거나 단조로운 차이 뿐이다”라고 하여 許慎의 “隹爲短尾鳥之總名, 鳥爲長尾禽之總名”이라는 解說을 否定하였다⁶¹⁾.



115. 羴

羊臭也。從三羊。(式連切)

『說文』에서는 “羊臭(양의 냄새)”라고 자의를 해설하였지만 甲骨文 자형은 와 같이, 양 세 마리 혹은 네 마리를 그린 것으로, 俞樾은 “‘양의 냄새’는 ‘羴’字로 표시하고, ‘羴’은 ‘群羊’의 뜻을 나타낸다. 마치 ‘羴’은 ‘群鳥’를 뜻하고, ‘羴’은 ‘群馬’를 뜻하는 것과 같다”⁶²⁾고 하여 本義를 “양의 무리”로 보았는데 따를 만 하다.


61)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中華書局, 1996, p.1667.

62)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94.



119. 鳥


長尾禽總名也。象形。鳥之足似匕，從匕。(都了切)

『說文』에서는 “長尾禽總名(긴 꼬리의 날짐승의 총칭)”이라고 하였지만 甲骨文은  로, 새를 그린 것이며 “隹”보다는 더 상세하게 그렸을 뿐 모두 새를 뜻한다. 許慎은 “隹”에 대해서는 “鳥之短尾總名”이라 하고 “鳥”에 대해서는 “長尾禽總名”이라고 解說하고 있는데 두 字는 甲骨文에서는 同一字이므로 正確하지 않다⁶³⁾.



373. 麤


行超遠也。從三鹿。(倉胡切)

『說文』에서는 “行超遠(멀리 뛰다라는 뜻)”이라고 하였지만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두개의 사슴을 그린 것인데, 甲骨文에서 같은 것을 여러 개 그린 것은 “많다” 혹은 “무리”라는 의미이므로 本義는 “사슴의 무리”이다. 그러므로 『說文』의 “行超遠”은 本義가 아니다.



378. 𤝵

兩犬相齧也。從二犬。(語斤切)


『說文』에서는 “兩犬相齧(두 마리의 개가 서로 물어뜯는 다는 뜻)”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  은 두 마리의 개가 나란히 서있는 모습이 지 서로 물어뜯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므로 許慎의 解說은 精確하지 않다고 본다.

(3) 其他

— 001. 一

惟初太極，道立於一，造分天地，化成萬物。(於悉切)

63) 本文 109번째 部首 “隹”의 해설을 참고

原文을 보면 “태초에는 태극뿐이었으니, 道는 一에서부터 세워지고, 천지가 분리되며, 만물이 化成된다”고 신비롭게 해설하고 있지만 “一”의 甲骨文 자형은 一로, 甲骨文에서 一, 二, 三, 는 다만 가로획을 쌓아서 이루어진 數자일뿐 許慎의 해설처럼 심오한 뜻은 없다⁶⁴. 原始時代에는 단순히 “하나”를 표시하기 위하여 만든 글자인데 後世에 哲學的인 의미가 부여된 것이다.


 002. 上
高也。此古文上。指事也。(時掌切)

『說文』에서는 “高(‘높다’라는 뜻이다)”라고 자의를 解說하고 있지만 甲骨文 자형은 二로, 한 물체 위에 다른 한 물체가 있음을 뜻하는 指事字이다. “高”는 引伸義이며 本義가 아니다.

 004. 三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一 天地人之道也。從三數。(穌甘切)

『說文』에서는 “天地人之道(天地인의 道를 뜻하는 것)”이라고 심오한 뜻으로 解釋하고 있지만, 甲骨文에서 “三”은 단순히 세 개의 가로획을 쌓아 3이라는 숫자를 뜻하는 것이다. 戰國, 秦漢時代사람들이 철학관념을 부여하여 天地인의 理致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⁶⁵.

 044. 冊
符命也。諸侯進受於王也。象其札一長一短；中有二編之形。(楚革切)

甲骨文을 고찰해 보면 와 같은 형태로 되어있는데, 끈으로 대나무를

64)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2.


65) 上揭書, p.7.

가로질러 꿰어 위아래를 맞춰 엮은 冊이다⁶⁶). 許愼이 “符命”이라 한 것은 本義가 아니다.



350. 山


宣也。宣气散，生萬物。有石而高。象形。(所間切)

『說文』에서 “宣气散，生萬物(宣通한 기가 흩어져 만물은 성장한다)”라고 한 것은 陰陽五行說에 의한 것이므로 믿을 바가 못된다. “宣”이라 함은 聲訓이다.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산봉우리가 竝立된 形象이다.



354. 厂


山石之厓巖。人可居。象形。(呼旱切)

“厂”의 小篆이 “广”자와 유사함으로 許愼은 “广”字와 同一字로 보고 “人可居(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라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甲骨文에서는 “石”과 同一字 즉 돌이다⁶⁷). 그러므로 『說文』의 字義解說是 正確하지 않다.



382. 火

燬也。南方之行，炎而上。象形。(呼果切)

『說文』에서 “南方之行”이라고 한 것은 陰陽五行說에 의한 것이며 經學家的 立場에서 解釋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이다.




469. 絲

蠶所吐也。從二糸。(息茲切)


66) 中國社會科學研究院考古研究所, 『甲骨文編』, 中華書局, 1965, p.87.

67)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1031.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두 개의 실마리의 形象으로 실을 뜻한다. “糸”나 “絲”는 모두 묶어서 잣은 실이지 『說文』에서 “蠶所吐也(누에가 토해 낸 명주실)”이라고 한 것은 根據가 없는 말이다.

一 479. 二

一 地之數也。從偶一。(而至切)

『說文』에서 “地之數(땅의 數)”하 함은 『周易』에 “天一地二”라 하여 그것을 따른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단순히 획을 쌓아 그 수를 나타낸 것이지 哲學的 意味는 없다.


위와 같이 人體, 動物, 其他 등 세 그룹으로 나누어 甲骨文에 의하여 분석한 결과 『說文』의 540部首字 중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370部首”에서 字義해석이 正確하지 않은 部首字는 모두 23字인데, 人體에 관련된 部首가 8字, 動物에 관련된 部首는 6字, 其他 部首는 9字이다.

2) 本義가 分明하지 않은 部首字

『說文』 部首에 해당되는 370字의 甲骨文 중에는 字形이 무슨 形象을 취한 것인지 알 수 없어 本義가 分明하지 않은 글자들도 더러 있어 正설이 確立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丿 153. 彡


气欲舒出, 勺上礙於一也。彡, 古文以爲弓字, 又以爲巧字。(苦浩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形象이 分明하지 않아 初義를 알 수 없다. “斤”의 甲骨文자형과 부분적으로 유사하여 일부 學者들은 “柯”(도끼자루)의 初文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추측일 뿐이다. 『說文』에서는 “气欲舒出,


勺上礙於一也(숨이 위로 나오려 함이며, 一은 그 숨을 가로막아 차단함이다)라고 解說하고 있으나 根據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⁶⁸⁾.


 154. 可
𠂔也。從口、𠂔，𠂔亦聲。(肯我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口”의 윗부분은 도끼모양인 것 같으나 그 형상이 分明하지 않아 本義를 알 수 없으며 正설이 確立되지 않았다.

 155. 兮
語所稽也。從亏、八，象气越亏也。(胡雞切)

『說文』에서는 “亏”과 “八”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로, 許慎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으며 甲骨文을 보고서는 어떤 形象을 취한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本義는 分明하지 않으며, 『說文』의 “語所稽(말을 머무르게 함이다)”는 本義가 아니다.


 169. 虤
虎怒也。從二虎。(五閑切)

『說文』에서는 “虎怒(호랑이가 성냄이다)”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두 호랑이가 등을 돌리고 거꾸로 있는 모습이지 성내거나 싸우는 형상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 本義를 알 수 없다⁶⁹⁾.

 178. 皀
穀之馨香也。象嘉穀在裹中之形。匕，所以扱之。或說皀一粒也。又讀若香。(皮及切)

68)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119.


69)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532.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그 形象이 分明하지 않으며 本義를 알 수 없다. 『說文』에서는 “𦉳”의 小篆에서 “白”을 “嘉穀在裹中之形(좋은 씨앗이 껍질 속에 있는 형상)”이라고 보고, “白” 밑의 것을 “匕”로 보아 “밥을 취하는 도구”로 보았는데 이는 小篆에만 의한 分析이므로 正確하지 않다70).



216. 艸



艸葉也。從垂穗，上貫一，下有根，象形。(陟格切)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形象이 分明하지 않아 本義를 알 수가 없으며, 『說文』에서 “艸葉(풀잎)”이라고 한 것은 正確하지 않다71).



238. 有


不宜有也。『春秋傳』曰：日月有食之。從月，又聲。(云九切)

甲骨文的 자형은  로 字形이 分明하지 않아 本義를 알 수가 없다. 金文의 字形은  인데, 손으로 고기를 들고 있는 모양으로 “점유하다, 획득하다”의 뜻이다. 小篆은 “月”과 “肉”의 字形이 같으므로 許慎은 “肉”을 “月”로 보았는데 잘못 된 것이다.



312. 兄

長也。從儿，從口。(許榮切)


『說文』에서는 “長(어른)”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어떻게 형이란 뜻을 나타내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72).



70)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137.

71) 上揭書, p.165.

72) 上揭書. p.230.


449. 氏

巴、蜀山名岸脅之旁箸欲落墮者曰氏。氏崩，聞數百里。象形，聲。揚雄賦：響若氏隕。(承旨切)

甲骨文的字形은 이며, 金文의 字形은 로, 그 形象과 本義를 알 수 없다. 『說文』의 解說 역시 믿을 바가 못된다.



499. 阜

小阜也。象形。(都回切)

甲骨文的字形은 인데 字形이 分明하지 않아 諸家들의 見解가 分分하다. “師”의 古文과 字形이 비슷하므로(增訂殷墟書契考釋) 羅振玉은 “師”字로 보고 있다. 郭沫若은 “堆”의 古字로 보고 있으며, 孫海波 등은 『說文』의 “小阜”를 따른다⁷³⁾. 그러나 모두 추정일 뿐 明確한 根據는 없다.

513. 甲


東方之孟，陽氣萌動，從木戴孚甲之象。一曰：人頭宜爲甲，甲象人頭。(古狎切)

甲骨文的字形은  혹은 으로, 어떤 形象을 취한 것인지 分明하지 않다. 許慎의 解說은 陰陽五行說에 의한 것이므로 따를 바가 못된다. 屬字가 없어 그 本義를 더욱 알 수 없다.

514. 乙

象春艸木冤曲而出，陰氣尚彊，其出乙乙也。與丨同意。乙承甲，象人頸。(於筆切)

73)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p.1499~1500.



『說文』에서는 “象春艸木冤曲而出(草木이 굽어서 나온 형상)”으로 보고 있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그 形象이 분명하지 않다. 許慎의 字形, 字義 分析이 明確한 根據가 없으므로 正確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研究 중에 있다⁷⁴⁾.



515. 丙

位南方, 萬物成, 炳然。陰氣初起, 陽氣將虧。從一入門。一者, 陽也。


丙承乙, 象人肩。(兵永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字形이 분명하지 않으며 『說文』 역시 陰陽五行說에 입각한 것이므로 精確한 해설을 하지 못하였다. 學者들의 見解가 各異한데, 郭沫若은 “물고기의 꼬리”같다하고, 于省吾는 “물체의 다리”같다하고, 葉玉森은 “几의 형태”와 같다고 하는데 모두 確證이 없는 말이다⁷⁵⁾. 筆者의 소견에는  (丘)를 뒤집은 形象으로 보인다. 즉 “사람이 사는 동굴”을 뜻하는 것 같으나, 여기서는 아직 精설이 없다는 것만 밝히고 나중에 더 심도 깊어 研究 하려 한다.



518. 己

中宮也。象萬物辟藏誦形也。己承戊, 象人腹。(居擬切)

甲骨文의 字形은 이다. 羅振玉과 郭沫若은 주살(雉)에 휘감긴 줄의 形象으로 “雉”의 本字로 보고 있으며, 葉玉森은 닭시줄을 묶은 形象이라고 하였으나 모두 根據 없는 推測일 뿐이다⁷⁶⁾. 『說文』에서는 陰陽五行說에 의하여 解說하고 있으니 믿을 바가 못된다.

74)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370.


75)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1541.

76) 上揭書, pp.1555~1556.



523. 壬




位北方也。陰極陽生，故『易』曰：龍戰于野。戰者，接也。象人裹妊之形。承亥壬以子，生之叙也。與巫同意。壬承辛，象人脛。脛，任體也。(如林切)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그 形象이 分明하지 않다. 『說文』에서는 字義 해석에는 도움이 안 되는 陰陽五行說의 原理로 解說하고 있으며, 屬字마저 없으니 그 本義는 알 수 없다.



524. 癸


冬時。水土平，可揆度也。象水從四面流入地中之形。癸承壬，象人足。(居誥切)

甲骨文的字形은  이며, 金文의 字形은  으로,  (矢)가 變化된 것으로 보는 學者들도 있으나 筆者의 所見에는 네 개의 날카로운 끝이 있어 돌려서 뿌릴 수 있는 兵器의 形象으로 보인다. 아무튼 아직까지는 정설이 없다. 『說文』에서는 “象水從四面流入地中之形(물이 사방으로부터 땅속으로 흘러드는 형상)”이라고 하였으나 小篆에만 의한 分析에 不過하다.



531. 卯

冒也。二月。萬物冒地而出，象開門之形，故二月爲天門。(莫飽切)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그 形상이 分明하지 않아 本義를 알 수 없으며 諸家들의 見解도 各異하다. 王國維는 “卯”와 “劉”의 古音은 같아 “卯”는 “劉”의 假借字가 아닐 가 의심하였고, 吳其昌은 한 쌍의 칼을 세워놓은 모습이라고 하였다⁷⁷⁾. 高鴻緝은 “剖”의 初文으로 보았는데, “八로 물건을 둘로 쪼개는 것”을 따르며, 어떤 물건인지는 모르나 합치면 ○이고 쪼개면 C∩

77) 上揭書 p.1588.

로 되는 것으로 모든 물건의 通象이다”78)라고 하였으니 모두 참고 할 만 하나 確證이 없다. 『說文』에서는 “象開門之形(門을 열어 놓은 형상)이라고 하였으나 本義인지는 알 수 없다.



535. 未

味也。六月。滋味也。五行木老於未，象木重枝葉也。(無沸切)

甲骨文的 字形은 未 로, 『說文』에서는 “象木重枝葉(나무의 가지와 잎이 무성한 형상)”이라고 하였는데 따를만하다. 本義는 알 수 없고, 地支字로 假借된 것은 確實하다79).



540. 亥

亥也。十月。微陽起，接盛陰，從二，二，古文上字。一人男，一人女也。從乙，象裹子咳咳之形。『春秋傳』曰：亥有二首六身。亥，爲豕，與豕同。亥而生子，復從一起。(胡改切)

甲骨文的 字形은 亥 로, 그 字形이 分明하지 않아 本義를 알 수 없다. 『說文』에서는 “二”와 “乙”을 따르며, 한사람은 남자이고 한사람은 여자이며 “象裹子咳咳之形(마치 아이를 앓고 다독이는 모습과 같다)”고 하였는데 이는 小篆에만 의한 억지 主張에 不過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說文』 540部首 가운데서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370部首字” 중 本義가 分明하지 않은 部首字는 모두 19字이다.

3. 字形, 字義解釋이 모두 正確하지 않은 경우

『說文』 540部首 중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370部首字” 가운데는 字形과

78)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385~386.

79) 上揭書, p.389.


字義解說이 모두 正確하지 않은 部首字도 있는데, 人體, 動植物, 器物, 衣食住, 其他 등 다섯 가지 부류로 나누어서 甲骨文과의 比較를 통하여 그 誤謬를 밝히려 한다.

(1) 人體



027. 止


下基也。象艸木出有址，故以止爲足。(諸市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사람의 발을 簡略하게 그린 것인데, 『說文』에서는 “象艸木出有址(초목이 아래에서 나오는 것을 본땀다)”고 하였으니 正確하지 않다. “止”부의 14개 屬字 중 草木과 관계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당연히 止의 本義인 발과 관련된다. “止”는 “趾”字的 古字이다. 『說文』에서 “下基”라 한 것은 引伸된 뜻이다.



033. 辵


乍行乍止也。從彳，從止。讀若『春秋公羊傳』曰辵階而走。(丑略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사거리와 발을 그려 “간다”는 뜻을 會意하였다. 『說文』에서는 “乍行乍止也. 從彳，從止(잠깐 가다가 잠깐 멈추다라는 뜻이며 ‘彳’와 ‘止’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王筠은 『說文句讀』에서 “許慎이 ‘자형에 止字가 있어서 잠깐 가다 잠깐 멈춘다’는 뜻이라고 하였는데 옳지 않다. 같은 部首 내의 字는 모두 ‘간다’는 뜻이어서 ‘辵’字와 ‘行’字는 같은 뜻이다. ‘止’는 단지 ‘발’의 뜻일 뿐이다.”라고 하였다. 甲骨文에서는 行과 止를 따르므로 “從彳，從止”는 小篆에만 의거한 잘못된 分析이다.



065. 異


分也。從升，從畀。畀，予也。(羊吏切)

甲骨文的字形은  으로, 사람이 두 손으로 머리에 무슨 물건을 쓰고 있는 形象이므로 楊樹達은 “戴”의 初文이라고 하였다⁸⁰⁾. 『說文』에서 “從升，從畀”라고 한 것은 甲骨文을 보지 못하고 解析한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分也” 역시 本義가 아니다.



075. 鬥


兩士相對，兵杖在後，象鬥之形。(都豆切)

『說文』에서는 “兩士相對，兵杖在後，象鬥之形(두 병사가 대치해 있는 것인데, 병기가 뒤에 있고 싸우는 형태이다)”라고 解說하였는데,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보면 두 사람이 손으로 서로 잡고 있는 모습이지, 許慎의 해설처럼 병기가 뒤에 있는 모습은 아니다⁸¹⁾. 羅振玉은 『殷墟書契考釋』에서 “甲骨文의 여러 形態의 字形들은 모두 두 사람이 서로 다투는 모양을 본떴는데, 무기가 없다. 許慎은 두 사람이 싸우는 모양을 무기를 든 모양으로 잘못 보지 않았을까? 字形으로 살피건대, 맨손으로 격투하는 것을 鬥라고 한다.”고 하였으며, 段玉裁는 『說文解字注』에서 “두 사람이 손으로 상대방을 붙잡은 것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여 “象鬥之形”이라는 分析을 否定하였다.



082. 畫

界也。象田四界，聿，所以畫之。(胡麥切)

『說文』에서는 “界也. 象田四界，聿，所以畫之(경계를 나타낸다. 田이 네 개의 경계로 나누어진 것과 같으며, 聿로 그린 것이다)”라고 解說하였으나,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손으로 칼을 잡고 그림을 새기는 形象이다. 戰國時代에 이르러 “聿”의 아랫부분이 “田”으로 변화되었는데 秦漢時代 사람들

80) 周法高 編, 『金文詁林』, p.1467.


81)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64.

은 그 變化過程을 모르고 “발의 경계를 나누는 것”으로 誤釋한 것 같다.



084. 堅


堅也。從又，臣聲。讀若鏗鏘之鏗。古文以爲賢字。(苦閑切)

『說文』에서는 “堅也. 從又, 臣聲(견고하다라는 뜻이다. 又를 따르며, 臣聲이다)”라고 解釋하고 있는데, 甲骨文의 字形은  형태로, 손으로 다른 사람의 눈을 잡은 것을 나타내는 形象이다. 馬氏는 『疏證』에서 “이 字를 살펴보면 ‘牽’字의 本字이다. ‘堅’은 聲訓이고, 뜻은 당연히 붙잡는 것을 말함이다.”고 하였다. 또한 會意字이므로 “從又, 臣聲”으로 분석하는 것은 正確하지 않다.



085. 臣


牽也。事君也。象屈服之形。(植鄰切)

『說文』에서는 “牽(끌리는 것)”이며 “象屈服之形(굴복하는 형상이다)”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눈을 象形한 것이며 굴복하는 形象은 보이지 않는다. “事君(군주를 모시는 것 즉 신하)”라는 뜻은 나중에 생긴 뜻이므로 許慎의 字形, 字義解釋은 正確하지 않다.



146. 左

手相左助也。從𠂇、工。(則簡切)


『說文』에서는 “手相左助(손으로 일을 돕는 다는 뜻)”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왼손을 그린 것이다. 西周시기부터 “工”部를 추가하여 “왼쪽”을 나타내기도 하고, “補佐”의 뜻도 가지게 되었다. 후에 “人”부를 증가시켜 “佐”를 만들어 “돕다”의 의미를 나타내게 하고, “左”는 전문 “왼쪽”이라는 방향을 나타내게 되었다⁸²). 『說文』에서 “從𠂇、工(𠂇와 工

을 따른다)”고 한 것은 小篆에만 의한 잘못된 分析이다.



151. 曰


詞也。從口，乙聲。亦象口气出也。(王伐切)

『說文』에서는 “從口，乙聲(口를 따르며，乙성)”이라고 하였으나，甲骨文의 자형은 로，사람의 입으로부터 소리가 흘러나옴을 뜻하는 것인데 春秋 이후부터 小篆과 같은 형태로 썼으며 “乙”聲을 따른다는 許慎의 解說은 정확하지 않다⁸³⁾. 本義는 “말하다”이며 “詞”는 假借義의이다.



152. 乃


曳詞之難也。象氣之出難。(奴亥切)

『說文』에서는 “象氣之出難(숨이 나오기 어려워하는 모양을 본뜬 것이다)”라고 字形을 分析하고 있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여인의 乳房의 측면 형태를 그린 것이며 “奶”의 初文이다⁸⁴⁾. 그러므로 『說文』에서 “曳詞之難(말을 빼기 어려움을 나타낸 것이다)”은 本義가 아니다⁸⁵⁾.



172. 去

人相違也。從大，口聲。(丘據切)

『說文』에서는 “從大，口聲(大를 따르며，口성)”이라고 하였지만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사람을 그린 “大”와 함정을 뜻하는 “口”를 따르며 本義는 “뛰어 넘다”이다⁸⁶⁾. 『說文』의 “人相違(사람이 서로 떠난다는 뜻)”은 引伸義이다.

82)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114~115.

83) 上揭書, p.118.

84)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500.


85)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119.

86)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549.



198. 攴

行遲曳攴攴，象人兩脛有所躑也。(楚危切)


『說文』에서는 “行遲曳攴攴，象人兩脛有所躑(느릿느릿 걸어간다는 뜻으로, 마치 사람이 두 종아리에 신을 끌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였는데, 甲骨文 字形은 으로, 사람의 발을 거꾸로 그린 것이다. 즉 거꾸로 감을 뜻한다. 許慎은 무엇을 보고 그렇게 解說하였는지 알 수가 없다.



201. 韋

相背也。從舛，口聲。獸皮之韋，可以束枉戾相韋背，故借以爲皮韋。


(字非切)

『說文』에서는 “相背也. 從舛，口聲(대립되다라는 뜻이다. 舛을 따르며 口聲)”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 字形은 으로, 가운데 “口”는 目的地를 의미하며, 양쪽은 발을 그린 것인데, 그곳으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멀어짐을 뜻한다. 그런고로 “違”의 初文⁸⁷⁾이다. 가죽이라는 뜻은 假借義이며, “相背” 역시 本義가 아니다.



205. 桀


磔也。從舛在木上也。(渠列切)


『說文』에서는 “磔(찢다)”라는 뜻이며 “從舛在木上舛이 木위에 있는 것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사람이 나무 위에 서있는 모습이다⁸⁸⁾. 本義는 높은데 올라서서 “멀리보다”이다. “磔”은 本義가 아니며, “舛”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大”를 따른다.

87)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154~155.

88)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634.


210. 𣎵

日初出東方湯谷，所登搏桑，木也。象形。(而灼切)

甲骨文 字形은 으로, 사람이 꿇어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빗고 있는 형상이다. 本義는 “순조롭다”는 뜻⁸⁹⁾으로 사용되고 있다. 『說文』의 해설처럼 桑나무의 形象이 아니므로 許慎의 字形, 字義分析은 모두 正確하지 않다.


211. 之

出也。象艸過中，枝莖益大，有所之。一者，地也。(止而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사람의 발이 땅에서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것으로, 즉 사람이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뜻한다⁹⁰⁾. 『說文』에서는 “出也. 象艸過中，枝莖益大，有所之(뻗어 나온다는 뜻이다. 풀이 싹이 나고 줄기와 가지가 커지고 날마다 자라남이다)”라고 하여 字形을 草木으로 誤認하고 解說한 것이니 正確하지 않다.

235. 冥

幽也。從日，從六，冫聲。日數十。十六日而月始虧幽也。(莫經切)

『說文』에서는 “從日，從六，冫聲(日和 六을 따르며 冫聲이다)”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마치 두 손을 이용하여 수건으로 물건을 닦는 형태와 같다⁹¹⁾. 글씨가 전해지는 가운데서 많은 착오가 생겼다. 모종의 물건을 뜻하는 “口”가 “日”의 형태로 바뀌었고, 두 손이 “六”으로 변하였다. “幽(그윽하다)”는 本義가 아니다. 許慎은 그럴 듯하게 解釋하였으나 억지로 짜 맞추는 것이다.


89)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161~162.

90)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678.

91)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178~179.


251. 克

肩也。象屋下刻木之形。(若得切)

甲骨文的 자형은 으로, 일설에는 북을 치는 형상⁹²⁾이라 하고, 일설에는 사람이 아래를 웅크리고 물건을 받드는 모양⁹³⁾이라 하였다. 아무튼 사람의 형상이다. 『說文』에서 “象屋下刻木之形”이라는 字形分析은 正確하지 않다. “肩”이라 한 것은 引申義이다.


284. 白

西方色也。陰用事，物色白。從入合二，二，陰數。(旁陌切)

『說文』에서는 “從入合二(入과 二를 합한 것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甲骨文的 자형은 으로, 郭沫若是 “엄지의 형상”이라고 말하였다⁹⁴⁾. 『說文』에서 “西方色也. 陰用事, …二, 陰數(서방의 색이다. 陰은 일에 쓰이고…二는 陰數이다)”라고 한 것은 陰陽五行說에 의한 解釋이다.

289. 𠂔

相與比叙也。從反人，𠂔亦所以用比取飯，一名𠂔。(卑履切)

『說文』에서는 “相與比叙也. 從反人(比의 다음 것과 같다. 人을 반대로 한 것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자형은 으로, 사람이 몸을 웅크리고 있는 형상이다. “𠂔”과 마찬가지로 “伏”의 初文으로 생각된다. 小篆에서는 人의 반대 형태이나 甲骨文에서는 그렇지 않다.


295. 土

善也。從人、土。土，事也。一曰象物出地挺生也。(他鼎切)

92)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773.


93)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189.

94)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869.

『說文』에서는 “人”과 “士”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은  으로, 사람이 흙 위에 우뚝 서있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挺”의 初文이다⁹⁵. “善(착하다)”는 本義가 아니다. 篆文에 이르러 흙이 “土”로 변하였는데 許慎은 그것을 “土”로 보았던 것이다.

 305. 尸


陳也。象臥之形。(式脂切)

『說文』에서는 “象臥之形(누워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자형은  로 아랫부분을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人”자와 區分하였다. “夷”의 本字이며, “夷”로 “尸”를 대체하고 “屍”의 뜻을 “尸”에 담았는데, 許慎은 “尸”의 本義를 모르고 “陳(진열하다)”라고 하였으므로 正確하지 않다⁹⁶.



 333. 文

錯畫也。象交文。(無分切)

『說文』에서는 “錯畫也. 象交文(교차되게 그린 것이다. 교차하는 무늬를 그린 것)”이라고 하였으나, 甲金文的 字形은  으로, 사람이 正面으로 서있는 모습이며, 가슴에는 문신이 새겨져 있다. “文”가운데에 있는 “∨, ×, ω” 등은 장식이다. 朱芳圃는 “文”을 “文身”의 “文”으로 보았으며, 嚴一萍 역시 “文”은 “文身”의 形象이라고 말하였으니 가히 따를만하다⁹⁷. 小篆에서는 가슴의 문신이 생략된 形態이며, 許慎의 解釋은 正確하지 않다.



95)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217.


96) 上揭書 p.224.

97)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中華書局, 1996, pp.3264~3266.


335. 后


繼體君也。象人之形。施令以告四方， 故厂之。從一口，發號者，君后也。(胡口切)

『說文』에서는 “施令以告四方， 故厂之(명령하여 사방에 알리는 것이므로 厂을 사용하였을 것이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자형은 로, “厂”의 형태가 보이지 않는다. 『說文』에서는 또한 “一”과 “口”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에서는 “人”과 “去(去)”을 따른다. “育”과 “毓”의 甲骨文 과 字形이 유사함으로 “낳다”가 本義이다⁹⁸. “繼體君(부락단체를 이어가는 임금)”은 本義가 아니다.


 340. 色

顏氣也。從人，從口。(所力切)

『說文』에서는 小篆에서 윗부분을 “人”으로 보고 아랫부분을 “口”로 보아 “人”과 “口”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오히려 윗부분은 칼을 그린 것이고 아랫부분은 사람 꿇어앉은 형상을 그린 것이다. 本義는 “斷絶”이다. “刀”는 “召”로도 쓰이므로 또한 “冫”이기도 하다. 즉 “色”과 “冫”는 同一字이다⁹⁹. 許慎이 “顏氣(미간에 나타나는 기운)”이라 한 것은 假借義이다.

 341. 卯

事之制也。從口 。闕。(去京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두 사람이 입을 벌리고 앉아 마주 보고 있는 형상으로 嚮의 初文이다¹⁰⁰. 그러므로 『說文』에서 “事之制”라고 한 것은

98)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1581.

99) 上掲書, p.1013.


100) 上掲書, p.1013.

本義가 아니며 “𠂔”과 “𠂔”을 따른다는 것 역시 正確하지 않다.



345. 苟




自急救也。從羊省，從包省，從口，口猶慎言也。從羊，羊與義、善、美同意。(巳力切)

甲骨文의 字形은 로, 徐中舒는 강아지가 두 귀를 세우고 앉아서 놀라하는 모습으로서 “警”의 初文이라고 하였다¹⁰¹⁾. 『說文』에서도 “自急救(스스로 급하나 경계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러나 甲骨文을 관찰해 보면 하반부는 강아지가 아닌 사람(𠂔, 印 등의 甲骨文 참조)을 그린 것이다. 즉 사람이 공손하게 꿇어앉아 두 귀를 기울이고 듣는 형상으로 보인다. 즉 “예의바르다”라는 뜻의 “敬”의 初文으로 생각된다. 『說文』에서는 또 “從羊省, 從包省, 從口”라고 하였으나 이는 甲骨文을 보지 못하고 小篆에만 의하여 解釋한 誤謬이다.



347. 𩇛


鬼頭也。象形。(敷勿切)

『說文』에서는 “鬼頭(귀신의 머리)”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은 으로, 鬼의 머리 “田”과는 다른 형태이다.  (406)은 정수리를 뜻하며, 와 실제는 같은 字이다. 그러므로 本義는 정수리일 것이다¹⁰²⁾.



384. 黑


火所熏之色也。從炎上出 ,  古窗字。(呼北切)


『說文』에서는 “火所熏之色(불에 그을린 색)”이라고 解釋하고 있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사람이 정면으로 서있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머

101) 上揭書, p.1020.


102)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254~255.


리부분이 특이하다. 墨刑(五刑중의 하나)을 받는 사람을 뜻한다¹⁰³⁾. 『說文』에서 또 “炎”위에 “𠂔”이 있는 것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이는 小篆의 字形에만 의한 잘못된 分析이다.


 392. 夭
屈也。從大，象形。(於兆切)

『說文』에서는 “屈也. 從大, 象形(구부러지다 이다. 大를 따르며, 상형이다)”라고 하였다. 小篆의 字形은 머리가 오른 쪽으로 기운 형태이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사람이 걸을 때 양쪽 팔을 흔드는 形象이며, 머리가 기울어진 것과는 無關하다. 그리고 獨體象形이므로 “大”를 따른다는 것은 正確하지 않다.

 418. 永
長也。象水涇理之長。詩曰：“江之永矣”。(于憬切)

『說文』에서는 “長也. 象水涇理之長(길다라는 뜻이다. 물줄기가 긴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지만, 甲骨文의 字形은  혹은 좌우가 바뀐 形態로 “사람이 물 속에서 헤엄치다”라는 뜻의 會意字이며, “泳”의 初文이다¹⁰⁴⁾. 『說文』의 “長”은 假借義이다.

 419. 𣶒
水之衰流，別也。從反永。讀若稗縣。(匹卦切)

『說文』에서는 “水之衰流, 別也. 從反永(강물이 비껴 흐른다는 뜻인데, 큰 강이 나누어지는 것이다. 永을 반대로 쓴 것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甲骨文의 字形은  로, “永”의 異體字이다¹⁰⁵⁾. 그러므로 許慎의 字形, 字義解說是


103) 李徹, 「說文部首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民國76年, p.250.
104)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301.
105) 上揭書, p.302.

정확하지 않다. 즉 本義는 “헤엄치다”이다.



444. 毋


止之也。從女，有奸之者。(武扶切)

『說文』에서는 “止之(그치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禁止詞로 쓰인다는 뜻이므로 本義가 아니다. “從女，有奸之者(女를 따르며, 奸淫하려는 자가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甲骨文의 字形은 로, 卜辭에서는 “毋”와 같이 쓰인다. 가운데의 두 점은 乳房을 뜻하는데 小篆에서는 “一”로 대체하였다. 許慎은 小篆만 보고 나름대로 解說한 것이므로 믿을 바가 못된다.



482. 堇


黏土也。從土，從黃省。(巨斤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두 팔을 결박당한 사람이 불(火)위에 있는 형상인데 “爨”의 本字¹⁰⁶⁾이다. 후에 “火”가 “土”로 변화되어 “堇”으로 되었다. 許慎은 그 字源을 모르고 “土”를 따르며, “黃”의 생체를 따른다고 하였으니 정확하지 않다. 또한 『說文』에서 “黏土”라고 한 것은 本義가 아니므로 따를 바가 못된다.



486. 黃

地之色也。從田，從萑，萑亦聲。𡗗，古文光。(乎光切)

『說文』에서는 “地之色(땅의 색깔)” 즉 “노란색”이라고 하였는데,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사람이 環玉을 차고 있는 形象이다. 고대 貴族들은 옥을 차고 다니는 습관이 있다. 『禮記』에 “行步則有環佩之聲”이라고 하였으니 그 증거이다. 후세에 “노란색”의 뜻으로 假借되고 本義는 폐하였으나 “璜”字가 만들어져 佩玉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¹⁰⁷⁾. 許慎은 假借義를



106)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345.

말하고 있다. 許慎의 字形분석 또한 小篆에만 의한 것이니 正確하지 않다.



533. 巳

巳也。四月。陽氣巳出，陰氣巳藏，萬物見，成文章，故巳爲蛇。象形。
(詳里切)


『說文』에서는 “뱀”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혹은  로 되어있어 甲骨文에서는 “子”와 同字이다. 許慎은 뱀의 形象을 본뜬 것으로 보고 있는데 正確하지 않다. 『說文』에서는 역시 陰陽五行說의 原理로 解說하고 있으니 믿을 바가 못된다.

(2) 動植物



107. 習


數飛也。從羽，從白。(似入切)

『說文』에서는 “數飛也(새가 반복으로 날기 연습을 한다)”는 뜻으로 字의 義를 解說하고, “羽”와 “白”을 따른다고 字形을 分析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日”을 따른다. 郭沫若은 “이 字는 분명히 ‘羽’와 ‘日’을 따른다. 해가 맑은 날에 새가 날기를 배우는 것이다. 許慎은 ‘日’이 ‘白’으로 變化 된 것을 몰랐다”라고 하여 許慎의 解釋을 부정하였다¹⁰⁸⁾.



114. 羊


祥也。從𦍋，象頭角足尾之形。孔子曰：牛羊之字以形舉也。(與章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正面으로 본 羊의 머리의 뿔과 두 귀를 그린

107) 徐中舒, 甲骨文字典(中國, 四川辭書出版社), p.1475.


108) 郭沫若, 『卜辭通纂』, 中國, 科學出版社, 1983, p.156.

것이다. 獨體象形이므로 “從 𠂔”라는 字形분석은 正確하지 않다. 『說文』에서 “祥(길하다)”라고 한 것은 羊이 성질이 온순하여 吉祥의 의미가 있어 假借義로 쓰인 것¹⁰⁹⁾이지 本義는 아니다.


 122. 𣎵
交積材也。象對交之形。(吉候切)

『說文』에서는 “交積材(재목들을 교차로 쌓아놓은 것)”이며, “象對交之形(서로 교차된 모습)이라 하였으나, 甲骨文 자형은 으로, 두 마리의 고기가 만나는 형상¹¹⁰⁾이다. 그러므로 『說文』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133. 𠂔
別人肉，置其骨也。象形。頭隆骨也。(古瓦切)

『說文』에서는 “別人肉，置其骨(사람의 살을 발라내어 뼈만 남은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甲骨文의 자형은 卜辭용 소 肩胛骨에 글자를 새긴 것으로 와 같은 형태이며 “別人肉，置其骨” 形象은 보이지 않는다. 실체는 “骨”의 初文이다¹¹¹⁾.

 206. 𣎵
冒也。冒地而生，東方之行。從中，下象其根。(莫卜切)

甲骨文 字形은 으로, 위는 나무의 가지와 같고 가운데는 그 줄기이며 아래는 뿌리를 象形한 것이다. 『說文』에서 “冒地而生，東方之行(땅을 뚫고 위로 나와 성장하는 것으로 동방을 행한다)”고 한 것은 陰陽五行說에 의한 해석이므로 믿을 바가 못된다¹¹²⁾. 象形이므로 “中”을 따른다고 한 것은

109) 李徹, 「說文部首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民國76年, p.71.

110)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443.

111) 上揭書, p.464.




112)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158~159.

잘못된 해석이다. 『說文』에서 “冒(뚫고 나오다)”라고 한 것은 聲訓이다.



242. 多


重也。從重夕。夕者相繹也。故爲多。重夕爲多，重日爲疊。(得何切)

『說文』에서는 “重也. 從重夕(거듭 붙어난다는 뜻이다.夕이 중첩된 것을 따른다)”, “重夕爲多, 重日爲疊(夕이 중첩되면 多가 되고, 日이 중첩되면 疊이 된다)”고 그럴 듯하게 解釋하고 있지만 모두 正確하지 않다. 甲骨文의 자형은 이며, 甲骨文 은 “肉”이므로 “고기가 쌓여 많다는 뜻”이 되었다. 許慎은 을 夕으로 誤認하고 解釋하였으니 잘못된 것이다¹¹³⁾.





246. 鹵



艸木實垂鹵鹵然。象形。讀若調。(徒遼切)

『說文』에서는 “艸木實垂鹵鹵然(초목의 열매가 길게 드리워 있는 모습)”이라고 하였는데, 甲骨文의 자형은 로, 밤나무의 열매이다¹¹⁴⁾. 실제로 “초목의 열매가 드리운 것”이 아니고 “밤나무의 열매”라고 解釋해야 正確할 것이다.



253. 禾

嘉穀也。二月始生，八月而孰，得時之中，故謂之禾。禾，木也。木王而生，金王而死。從木，從 省，象其穗。(戶戈切)

『說文』에서는 “木”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자형은 로, 벼를 그린 것이다. “禾”는 篆書에서 全體象形이나, 隸書에서 “木”과 비슷해 졌으니 그래서 ‘從木，從 省’이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다. “禾”는 “木”이다 라고 하는 것은 陰陽五行說에 의한 解釋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113)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752.

114)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185~186.



365. 豚


小豕也。從豕省，象形。從又持肉，以給祠祀。(徒魂切)

『說文』에서는 “小豕(작은 돼지)”이며 “從又持肉(손(又)으로 고기(肉)를 쥔 것을 따른다)”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豕”와 “肉”을 따르며 돼지고기라는 뜻의 會意字이다. 許愼은 變化된 以後의 字形을 解說하고 있으니 正確하지 않다.



432. 不


鳥飛上翔不下來也。從一，一猶天也，象形。(方久切)

『說文』에서는 “鳥飛上翔不下來(새가 날아올라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다)”, “從一，一猶天(一을 따르는데, 一은 하늘을 그린 것이다)”고 하여 위의 “一”을 하늘로 보고 아랫부분을 새로 보았는데, 甲骨文의 字形은  로, 徐中舒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은 꽃받침의 形象으로 보고있으며, “柎”의 本字로 여기고 있다. 許愼의 解說은 根據가 없는 것이다.



457. 亡

逃也。從入，從乚。(武方切)

『說文』에서는 “逃也. 從入，從乚(도망가다 이다. 入과 乚을 따른다)”고 하였지만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刀”와 “、”을 따른다. 즉 까끄라기를 뜻하는 “𠂔”의 初文이다¹¹⁵⁾. 許愼은 小篆의 가운데 부분을 “入”으로 보고 위와 같이 解釋하였는데, 甲骨文이나 篆文에서의 “人”의 字形과 다르므로 許愼의 分析은 잘못된 것이다.


115) 上揭書, p.327.

(3) 器物



003. 示



天垂象，見吉凶，所以示人也。從二；三垂，日、月、星也。觀乎天文，以察時變。示，神事也。(神至切)

『說文』에서는 “天垂象，見吉凶，所以示人也。從二；三垂，日、月、星也(하늘에 드리워진 형태로서吉凶을 볼 수 있어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二를 따르며 日, 月, 星 세 가지가 드리워진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로, 神主의 형상을 그린 것이므로 『說文』의 解說은 정확하지 않다¹¹⁶⁾. “示”는 神主를 그린 것이기에 示를 따르는 글자들의 本義는 모두 조상들에 대한 숭배, 혹은 신 혹은 제사, 혹은 吉凶禍福 등과 관련된다¹¹⁷⁾.



005. 王

天下所歸往也。董仲舒曰：古之造文者，三畫而連其中，謂之王；三者，天、地、人也，而參通之者，王也。孔子曰：一貫三爲王。(兩方切)

『說文』에서는 “天下所歸往(천하가 모두 그에게 귀속된다)”고 해석하여 王의 權을 나타내고 있지만, 甲骨文에서는  혹은  와 같은 形態로 일종의 도끼모양의 兵器를 그린 것이다. 도끼는 점차 王權의 상징으로 되었다¹¹⁸⁾. 또한 董仲舒의 말을 빌어 “王”은 삼 획의 가운데를 연결시킨 것이며, 三은 天地人을 가리킨다고 하였는데 이는 變化된 이후의 書體를 해석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단순히 도끼를 그린 것인데 “王”은 天地人 즉 天下를 모두 가진 자라고 王에게 지나치게 아부하고 있다. 또한 孔子의 말을 빌어 그것을 合理化시키려 하였다.

116)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5~6

117) 上揭書, p.6.

118) 上揭書, p.8.

009. 士

事也。數，始於一，終於十。從一，從十。孔子曰：“推十合一爲士”。

(銅里切)

『說文』에서는 “始於一，終於十。從一，從十(一에서 시작되어 十에서 끝남이다. 一을 따르고 十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士”의 甲骨文은 로서 “王”字와 마찬가지로 도끼를 그린 것이다. 『說文』에서 “始於一，終於十”라 함은 “王”字를 “天下所歸往(천하가 모두 그에게 귀속된다)”고 解釋한 것과 마찬가지로 權力에 아부하기 위한 解說에 지나지 않는다.

013. 蓐

陳艸復生也。從艸，辱聲。一曰蒞也。(而蜀切)

『說文』에서는 “陳艸復生(풀들이 모여 번성해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甲骨文 字形은 으로, 손으로 농기구인 辰을 잡고 풀을 제거하는 形象며, 耨(김멜 누)와 農(농사 농)의 初文이다¹¹⁹⁾. 許慎은 또 “艸”를 따르며 蓐聲이라고 하였으나(形聲字), 甲骨文에서는 “艸”와 “辰”, “又”를 따르는 會意字이다.

042. 品

衆庶也。從三口。(丕飲切)


『說文』에서는 “衆庶也。從三口(시끄러운 소리라는 뜻이다. 세 개의 口를 따른다)”고 하였다. 즉 口가 많으니 시끄럽다는 뜻으로 解釋하였다. 그러나 甲骨文 字形은 으로, “口”는 口가 아닌 그릇을 뜻하는 것이고 많은 祭物을 그릇에 담아 신에게 바친다는 뜻이다¹²⁰⁾. 許慎은 “口”를 口로 잘못보고 위와 같이 解釋하였으니 本義와는 거리가 멀다.

119)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60

120) 上揭書. p.197.


047. 干

犯也。從反入，從一。(古寒切)

『說文』에서는 “犯(범하다)”의 뜻으로 解釋하고 있는데, 甲骨文 字形은  으로, 先秦시대 사람들이 사냥할 때 쓰던 武器를 본뜬 것이다. “犯”은 本義가 아닌 引申義이다. 또한 象形인데 “從反入，從一(入을 뒤집은 것과 一을 따르다)”이라고 會意字로 解說하는 것은 正確하지 않다.


059. 𠄎

罪也。從干、二。二，古文上字。讀若愆。(去虔切)


『說文』에서는 “罪也。從干、二(罪이다. 干과 二를 따르다)”고 하였지만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古代 墨刑을 행하던 새김칼의 形象을 그린 것이다. 즉 象形이므로 “從干、二”는 잘못된 字形분석이다. 『說文』에서 “罪”라 함은 本義가 아닌 假借義이다.

068. 晨


早，昧爽也。從日，從辰。辰，時也，辰亦聲。𠄎夕爲𠄎，日辰爲晨，皆同意。(食鄰切)


甲骨文의 字形은  이며, “辰”은 上古에는 農業에서 草木을 베는 農具이다¹²¹⁾. 『說文』에서는 “早，昧爽(아침을 뜻하는데 날이 새려고 먼동이 틀 때의 어두운 새벽을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는 本義가 아니다. 甲骨文에서는 “林” 혹은 “艸”와 “辰”을 따르므로 “從日，從辰”은 잘못된 분석이다.

121)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59.




 121. 箕


箕屬。所以推棄之器也。象形。官溥說。(北潘切)

『說文』에서는 “箕屬(키의 종류)”이며, “所以推棄之器也. 象形(찌꺼기를 가려 버리는 도구를 그린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자형은  로, 徐中舒(甲骨文字典)에 의하면, 이는 “畢”(그물)의 初文으로, 긴 자루에 그물이 있어 새나 짐승을 잡는 工具라고 하였다.


 147. 工

巧飾也。象人有規渠也。與巫同意。(古紅切)

『說文』에서는 “象人有規渠(사람이 원을 그리는 그림쇠 혹은 곱자를 가지고 있는 형상)”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혹은  으로, 徐中舒는 “示”의 甲骨文인  를 생략한 것이라고 하였다¹²²⁾. 許愼이 “巧飾(정교하게 꾸미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引伸義이다.

 149. 巫

祝也。女能事無形，以舞降神者也。象人兩袂舞形，與工同意。古者巫咸初作巫。(武扶切)

『說文』에서는 “象人兩袂舞形(두 사람이 화려한 옷을 입고 춤을 추는 형상)”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許愼 “巫”의 小篆에서 “工”의 양쪽의 것을 “人”으로 잘못보고 해석한 것이다. 甲骨文的 자형은  으로, 董蓮池는 “法器”의 형태라고 하였다¹²³⁾. 許愼이 “祝(신을 섬기는 일을 業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解釋한 것은 本義가 아니다.

122)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494.

123)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116~117

165. 豐

豆之豐滿者也。從豆，象形。一曰：『鄉飲酒』有豐侯者。凡豐之屬皆從豐。(敷戎切)

『說文』에서는 “豆”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豆”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樂器인 “豆”를 따른다. 즉 북을 그린 것이다. 오늘날 學者들의 연구에 따르면 “북 치는 소리”를 나타낸 글자이다¹²⁴⁾. 그러므로 “豆之豐滿者(큰그릇을 가리킨다)”라고 한 許慎의 分析은 正確하지 않다.

182. 會

合也。從人，從曾省；曾，益也。(黃外切)

『說文』에서는 “從人，從曾省(스을 따르며, 曾을 생략한 것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 字形은 으로 “口”는 그릇이고 “人”은 뚜껑이며 가운데 “日”은 물건으로 “물건이 가득 차다”가 本義이다. “會(합하다)”는 假借義이다.

227. 員

物數也。從貝，口聲。(王權切)

許慎은 『說文』에서는 “貝”를 따르며 “口”聲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아가리가 둥근 鼎을 그린 것이다. 小篆에 와서 아랫부분이 “貝”字로 잘못 전해졌다. “物數(사물의 수량을 표시한다)”는 本義가 아니다¹²⁵⁾. 許慎의 解說은 小篆에만 의거한 것이므로 믿을 바가 못된다.


124) 上揭書, p.128.

125) 上揭書, p.172.



248. 束


木芒也。象形。讀若刺。(七賜切)

『說文』에서는 “木芒(나무의 까끄라기)”라고 解釋하고 있는데,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鋒이 여러 개 있는 예리한 武器이다¹²⁶⁾. “束”의 小篆에서 가운데 부분은 “木”字와 유사함으로 許慎은 “나무의 까끄라기”라고 解釋하였을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252. 象


刻木象象也。象形。(盧谷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마치 우물의 도르래를 그린 것이며 “轆”의 初文이다. 『說文』에서 “刻木象象(나무에 새긴 것이 역력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한 解釋은 잘못된 것이다¹²⁷⁾.



264. 菽

豆也。菽象豆生之形也。(式竹切)

『說文』에서는 “豆也. 象豆生之形(콩이다. 콩이 자라는 모습을 象形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말뚝을 흙 속에서 뽑아 낸 形態이다. 옛날에는 콩을 “菽”이라고 하였다. 즉 “菽”과 “菽”은 同音이다¹²⁸⁾. 許慎은 그 音은 알고 形義는 몰랐으므로 “콩이 자라는 모습”이라고 해석하였을 것이다.

126) 于省吾, 『甲骨文字釋林』, 中華書局, 1979, p.176.


127)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774.

128)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197~198



310. 方


併船也。象兩舟省總頭形。(府良切)

『說文』에서는 “併船也. 象兩舟省總頭形(배를 나란히 한 것이다. 두 개의 배의 머리를 묶은 것을 생략한 형상)”이라고 解說하였지만,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徐中舒는 쟁기의 모습¹²⁹⁾이라고 하였다. “배를 나란히 한 모습”은 아니므로 許慎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336. 司


臣司事於外者。從反后。(息茲切)

甲骨文의 字形은 로, 입과 손가락을 그린 것인데 “먹는다”는 뜻을 나타낸다¹³⁰⁾. 그러므로 『說文』에서 “臣司事於外者(臣과 司는 밖에서 정사를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字義는 本義가 아니며, “后”를 반대로 한 것을 따른다 하였지만 甲骨文에서는 반대가 아니므로 역시 正確하지 않다.



359. 勿

州里所建旗。象其柄，有三游，雜帛，幅半異，所以趣民，故遽，稱勿勿。
(文弗切)

『說文』에서는 “州里所建旗(州리에 세우는 깃발)”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로, 徐中舒는 “弓弦을 그린 것인데 옆의 점들은 弓弦이 진 동함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해석하였다¹³¹⁾. “깃발”로 본 許慎의 字形, 字義 解說은 모두 正確하지 않다.

129)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p.953~954.



130) 上掲書, p.998.

131) 上掲書, p.1042.



368. 易



蜥易，蝮蜓，守宮也。象形。『祕書』說，“日月爲易，象陰陽也。”一曰從勿。(羊益切)

『說文』에서는 “蜥易(도마뱀)”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두개의 술잔으로 서로 술을 붓고 받는 형상이다. 本義는 “주다”(賜)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중에는 손잡이 부분과 물방울만 남긴 와 같은 형태로 생략되었다¹³²⁾. 許愼은 그것을 모르고 “도마뱀”으로 解釋하였고 또 『祕書』說을 引用하여 合理化 시키려 하였다.



397. 牽

所以驚人也。從大，從𠂔。一曰，大聲也。一曰讀若瓠。一曰俗語以盜不止爲牽。牽，讀若籟。(尼輒切)

『說文』에서는 “所以驚人也。從大，從𠂔(그로 인하여 사람이 놀란다. 大와 𠂔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쇠고랑이의 形象이다. 사용할 때 가운데의 두 구멍에 손을 넣은 다음 양쪽을 끈으로 묶는다¹³³⁾. 屬字 “執”의 甲骨文을 보면 으로, 사람이 죄를 지어 두 손이 묶여 있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쇠고랑이”인 것이 확연하다. 許愼의 자의해설은 明確하지 않으며, 字形 또한 잘못 分析하였다.




453. 我

施身自謂也。或說：我，頃頓也。從戈，從手。手，或說古垂字，一曰古殺字。(五可切)

『說文』에서는 “施身自謂(자기를 자신을 일컫는 것)”이라고 자의를 解

132)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p.268~270.


133)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p.1168~1169.

說하였는데 이는 本義가 아닌 假借義이다. 『說文』에서는 또 “戈”를 따르고 “𠄎”를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일종의 兵器의 모양이며 獨體象形이다¹³⁴. 許慎은 小篆의 오른쪽 부분이 “戈”자와 유사함으로 그렇게 分析하였을 것이다.



488. 力


筋也。象人筋之形。治功曰力，能禦大災。(林直切)

『說文』에서는 “筋也. 象人筋之形(힘이다. 사람의 힘줄의 모양이다)”라고 解說하고 있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원시 農器具인 쟁기의 모습이다. 밭을 갈려면 힘이 있어야 하였으므로 “힘”이라는 뜻이 引伸 되었을 것이다¹³⁵. 許慎은 그 字源을 모르고 解說하였으므로 正確하지 않다.



510. 九

陽之變也。象其屈曲究盡之形。(舉有切)

『說文』에서는 “陽之變(陽에서 변하는 것이다)”하여 역시 陰陽五行說의 原理로 解說하였으므로 正確하지 않다. 甲骨文의 字形은 로, 굽은 갈고랑이를 그린 것인데 『說文』에서는 “象其屈曲究盡之形(그 屈曲이 極에 닿은 형상)”이라고 解析하고 있으니 正確하지 않다. “鉤”의 初文으로 “九”와 古音が 비슷하므로 숫자 9로 借用되었을 것이다¹³⁶.



517. 戊


中宮也。象六甲五龍相拘絞也。戊承丁，象人脅。(莫候切)

『說文』에서는 “中宮也. 象六甲五龍相拘絞也. 戊承丁，象人脅(中央이다.

134)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324.

135)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1478.



136) 上揭書 p.1531.

마치 六甲중의 五龍이 서로 잡고 꼬여있는 형상이다. 戊는 丁 다음에 이어지며, 사람의 옆구리와 같다”고 전부 陰陽五行說로 說明하고 있으니 따를 바가 못된다. 甲骨文의 字形은 로, 도끼모양의 兵器이다. “戊”는 “六甲”에서 중앙에 위치해 있고 五劃이므로 許慎은 『周易』중의 “五龍”으로 비유한 것이다¹³⁷⁾.



520. 庚


位西方，象秋時萬物庚庚有實也。庚承己，象入臍。(古行切)

『說文』에서는 “象秋時萬物庚庚有實(가을에 만물이 단단하여 열매가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여 나무에 열매가 달린 形象으로 보고 있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이며 金文은 으로, 郭沫若은 “庚”의 字形을 “귀가 있고 흔들 수 있는 약기의 형상”으로 보았다¹³⁸⁾. 『說文』에서는 또 “位西方, 庚承己, 象入臍(서쪽에 위치하며, 庚은 己를 이으며, 사람의 배꼽과 같다)”라고 陰陽五行說에 의하여 解說하고 있다.



521. 辛

秋時。萬物成而孰，金剛味辛，辛痛卽泣出。從一，從 𠂔， 𠂔， 罪也。辛承庚，象人股。(息鄰切)

『說文』에서는 “一”과 “𠂔”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은 으로, 甲骨文에서는 “𠂔”과 同字이다. 즉 “새김칼로서 墨刑¹³⁹⁾을 시행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매움, 독함, 괴로움, 슬픔” 등의 뜻은 假借義이다. 『說文』에서 “秋時。萬物成而孰…辛承庚，象人股(가을을 뜻하며 만물이 성숙하는 것이다. ‘辛’은 ‘庚’을 이으며, 사람의 넓적다리와 같다)”고 한 것은 陰陽五行說에 따른 것이므로 따를 바가 못된다.

137) 段玉裁,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88, p.741.



138)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1558.

139) 墨刑이란 죄인의 얼굴에 죄명을 새기는 고대의 형벌이다.



530. 寅


鶡也。正月。陽氣動，去黃泉，欲上出，陰尚彊，象宀不達，鶡黃於下也。(弋貞切)

『說文』에서는 陰陽五行說로 일관하여 解說하고 있는데 믿을 바가 못된다. 早期(一~四期)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화살의 모양이며 矢와 同字이다. 그러나 後期(五期) 甲骨文은 兵器인 “矢”와 구별하기 위하여 “口”를 추가한 와 같은 형태로 변화되었다¹⁴⁰⁾. 小篆에서는 “宀”을 따르나 사실은 화살촉이 變化된 것이다.



537. 酉


就也。八月，黍成，可爲酎酒。象古文酉之形。從卯，卯爲春門，萬物已出。酉爲秋門，萬物已入，一，閉門象也。(與久切)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술을 담은 그릇의 形象을 그린 獨體象形이다. 『說文』에서는 “卯”를 따르며 “一”은 “閉門象(문을 닫은 형상)”이라고 자형분석을 하고 있지만 근거 없는 解說이다. “就”는 聲訓일 뿐 正確한 字義 解說은 못된다. “八月，黍成…”등등은 역시 陰陽五行說에 의한 解說이다.



539. 戌


滅也。九月。陽氣微，萬物畢成，陽下入地也。五行，土生於戌，盛於戌，從戌舍一。(辛聿切)

『說文』에서는 “滅(멸하다)”이며 “戌”가 “一”을 품은 것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로, 戌와 같은 도끼모양의 兵器를 그린 獨體象形이다. 小篆에서 “戌”와 “戌”의 자형이 비슷함으로 許慎은 “戌”가 “一”을 품은 것을 따른다고 하였을 것이다. “九月，陽氣微…”등등은 陰陽五行說에


140)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p.1585~1586.


의한 解說이므로 따를 바가 못된다.

(4) 衣食住


125. 專 


專, 小謹也。從幺省。中, 財見也。中亦聲。(職緣切)

『說文』에서는 “專, 小謹也. 從幺省(오로지, 조심하다라는 뜻이다. 幺를 생략한 것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 자형은  으로, 실을 감은 실패의 모양을 그린 것이며 “塹”의 初文이다¹⁴¹⁾. 許慎은 甲骨文을 보지 못하고 誤釋하였으므로 따를 바가 못된다.


177. 井 

八家一井。象構韓形。·, 灋之象也。古者伯益初作井。(子郢切)

甲骨文 字形은  으로, 우물의 위에 설치한 나무틀의 形象을 그린 것인데 이로부터 보아 殷商시대에서부터 사람들이 우물을 길어 먹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說文』에서는 “八家一井(여덟 가구가 한 우물을 사용함)”이라고 하였는데 이는 井田制를 이르는 것으로, 그 이전에 이미 “井”은 있었으니 후세의 制度로써 文字를 解說한 例이다¹⁴²⁾. 『說文』에서 “·”은 두레박이라고 하였는데 甲骨文에는 가운데 점이 없다.


180. 食 


一米也。從皀, 亼聲。或說：亼皀也。(乘力切)



『說文』에서는 “從皀, 亼聲(皀을 따르며, 亼聲)”이라고 하였는데, 甲骨文의 자형은  으로, 그릇 안에 밥이 가득 차있고, 그 위에 뚜껑이 있는 모

141)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100.



142) 李徹, 「說文部首研究」, 國立臺灣師範大學 석사학위논문, 民國76年, p.110.

습을 그린 것이다. 上古時代에는 생산력이 낮아 쌀밥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여 사람들은 쌀을 극히 珍貴하게 여겼으며, 祭器에 넣어 두고 위에 뚜껑을 닫았는데 그것을 보고 造字한 것이다¹⁴³⁾ “鬲”의 甲骨文은  로, “食”과는 아무런 關聯이 없으므로 “鬲”을 따른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一米(모아 놓은 쌀)”이라는 자의 解釋도 正確하지 않다.


 190. 京
人所爲絕高丘也。從高省，丨象高形。(舉卿切)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사는 동굴을 그린 것이다. “高”의 甲骨文은  로 “京”과는 자형이 다르다. 그러므로 “從高省(고가 생체 된 것을 따른다)”고 한 것은 正確하지 않다. 『說文』에서 “人所爲絕高丘(사람이 만든 높은 언덕)”이라고 한 것 역시 根據 없는 말이다.

 191. 獻
獻也。從高省，日象進孰物形。『孝經』曰祭則鬼之。(許雨切)

『說文』에서는 “獻(바치다)”이라고 자의를 解釋하였는데, 甲骨文的 자형은  으로, 사람이 사는 동굴을 그린 것이다. 그러므로 “獻”은 本義가 아니다. 또 “從高省，日象進孰物形(高에서 생체된 것이며, 日은 孰物을 넣은 것을 그린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高”의 甲骨文  과는 자형이 다르므로 “高”의 생체는 아니며, 甲骨文에서는 아랫부분이 “日”이 아닌 “口”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許慎의 解說은 正確하지 않다.

 249. 片
判木也。從半木。(匹見切)

甲骨文的 자형은  으로, 침상의 形態이다. 원래는 가로 써야 하나, 甲骨

143)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139.

文에서는 “가로 된 것을 세로” 쓴 경우가 많다. “片”의 小篆은 “木”의 小篆의 右半部와 비슷함으로, 許慎은 “從判木(木을 반으로 자른 것을 따른다)”고 하였는데 이는 小篆에만 의한 解析이므로 正確하지 않다¹⁴⁴⁾.



271. 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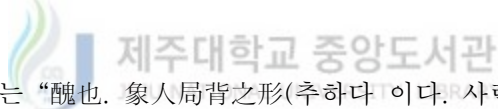
脊骨也。象形。昔太嶽爲禹心呂之臣，故封呂侯。(力與切)

『說文』에서는 “脊骨(등골뼈)”를 그린 것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呂로, 宮室의 창문과 출입문을 뜻한 것이지 등골뼈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¹⁴⁵⁾. 小篆의 자형을 許慎은 등골뼈 마디로 誤認한 것으로 보인다.



506. 亞

醜也。象人局背之形。賈侍中說，以爲次第也。(衣駕切)



『說文』에서는 “醜. 象人局背之形(추하다 이다. 사람의 곱사등이 모양을 본뜬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甲金文的 字形은 모두 亞로, 孫海波(甲骨文錄考釋), 高鴻緝(中國字例), 馬敘倫(六書疏證), 徐中舒(甲骨文字典) 등 학자들은 모두 “宮室의 형상”으로 보고 있다. 許慎은 小篆에서 가운데 흰 부분을 “곱사등”을 그린 형상으로 보고 解釋하였는데 正確하지 않다.



508. 六

『易』之數，陰變於六，正於八。從入，從八。(力竹切)

『說文』에서는 “『易』之數，陰變於六，正於八(『易周』의 數인데, 陰은 六에서 變하고, 八에서 바로 잡힌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陰陽五行說의 원리로 해설한 것이니 믿을 바가 못된다. 甲骨文的 字形은 六으로, 지붕과

144)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768.

145) 上掲書, p.834.

두 기둥을 그린 집의 모습이며 “宀”의 甲骨文과 자형이 비슷하다. 그러므로 『說文』에서 “從入，從八”이라고 한 字形분석 역시 正確하지 않다.



516. 丁

夏時。萬物皆丁實。象形。丁承丙，象人心。(當經切)

『說文』에서는 “夏時。萬物皆丁實(여름을 가리킨다. 만물은 모두 열매가 성한다)”고 하였는데, 甲骨文的 字形은 “口”으로, 徐中舒는 “半坡유적지의 건축물을 연구한 바에 의하면, ‘宮’의 자형과 같이 벽 윗부분에 공기를 통하게 하는 창구멍이 나있고, 창문 밑의 벽 가운데에 출입문이 뚫어져 있었다. 甲骨文에서는 書寫의 편리를 위하여 창문과 문의 크기를 균일하고 정연하게 그려 와 같은 자형을 만들었다. 그러나 宮室건축물을 실제로 고찰한 결과 ‘口’형은 창문이었으며, 宮室의 최상에 위치하고 있었다. 때문에 甲骨文에서는 창문의 형태인 ‘口’으로 頂顛의 頂을 표시하였을 것이며, 또한 天干의 丁으로 借用하였을 것이다”¹⁴⁶⁾고 해설하고 있다. 許慎의 解說은 陰陽五行說에 의한 것이므로 따를 바가 못된다.



534. 午

梧也。五月。陰氣梧逆陽，昌地而出。此予矢同意。(疑古切)

『說文』에서는 “梧(거역하다)”라는 뜻이며 “5월”을 가리킨다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으로, 실을 교차되게 묶은 형상이므로 “午(교착되다, 거역하다)”는 뜻으로 假借되었다¹⁴⁷⁾. 『說文』의 “陰氣梧逆陽…”등은 陰陽五行說에 의한 解說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5) 其他

146) 上掲書, pp.1548~1549.

147)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388.



008. 气

雲气也。象形。(去既切)

『說文』에서는 “雲气(구름이 피어오르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的 字形은 三으로, 雲氣의 형태가 아니다. 강물이 고갈된 모습을 그린 것인데, 二는 강의 양쪽 언덕의 형상이고 가운데 -은 강물이 말라버린 모습이다¹⁴⁸⁾. 春秋戰國時代에 이르러, 숫자 “三”과 구별하기 위하여 위의 一의 왼쪽 끝을 끌어올리고 아래 一의 오른 쪽 끝을 끌어내려 小篆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許慎은 小篆만을 보고 解釋한 것이다. “雲氣”라는 뜻은 후에 나온 假借義이다¹⁴⁹⁾.



037. 行

人之步趨也。從彳，從亍。(戶庚切)

『說文』에서는 “人之步趨(사람이 걸어나가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 자형은 𠂔으로, 사거리를 상형¹⁵⁰⁾한 것이다. 許慎은 사람의 다리를 상형한 것으로 보고 “人之步趨”라 해석하였는데 이는 本義를 떠난 것이다. 許慎은 또 “行”字를 두 개의 글자로 오인하여 右側을 “彳”이라하고, 左側을 “亍”이라 하였는데 이는 그 초기 字形을 몰랐기 때문이다.



053. 古

故也。從十口。識前言者也。(公戶切)

『說文』에서는 “故也(오래되다라는 뜻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甲骨文 자형은 𠂔으로, 本義는 “堅固하다”는 뜻으로 “固”는 “古”의 古文이다¹⁵¹⁾. “故”라 함은 假借義이다. 許慎이 “十”과 “口”를 따른다고 한 것은 甲

148)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38.
 149)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10.
 150)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182.
 151)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p.46.

骨文을 보지 못하고 解釋하였기에 범한 誤謬이다.


十 054. 十

數之具也。一爲東西，丨爲南北，則四方中央備矣。(是執切)

甲骨文의 字形은 丨으로, 『說文』에서는 “數之具也. 一爲東西, 丨爲南北, 則四方中央備矣(숫자중의 完備한 것이다. 一은 동서, 丨은 남북을 뜻하며, 사방의 중앙은 모든 것을 구비할 수 있다)”고 신비롭게 解說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단순히 숫자 십을 나타내는 抽象的인 符號일 뿐이다.


用 095. 用

可施行也。從卜，從中。衛宏說。(余訟切)

『說文』에서는 “卜”과 “中”을 따른다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가운데 부분은 “卜”과 비슷하나 “中”의 甲骨文형태는 찾아볼 수 없다. 吳其昌은 『殷墟書契解詁』에서 “用’字의 字形은 짧은 막대 두 세 개를 들쭉날쭉하게 땅에 꼽고 횡으로 나무 말뚝 한 두 개를 비스듬하게 걸쳐놓은 형태이다. 아마도 家畜을 가두는 울타리의 말뚝의 모양인 듯 하다.”고 하였는데 일리가 있다. “可施行(행할 수 있다)”도 本義가 아닌 假借義이다.

丰 140. 丰

艸蔡也。象艸生之散亂也。讀若介。(古拜切)

『說文』에서는 “艸蔡也. 象艸生之散亂也(지푸라기를 뜻한다. 풀이 어지러이 자란 모양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와 같은 형태이다. 옛날에는 “書”가 있기 전에 “契”가 있었다. 칼로 대나무 등에 글을 새겼는데, “丰”이 곧 “契”이다¹⁵²⁾. 許說是 正確하지 않다. 『說文』



152) 上掲書, p.109.

의 解說은 後世의 사람들이 잘못 전한 것이다.



207. 東


動也。從木。官溥說，從日在木中。(得紅切)

甲骨文 字形은 이고, 金文은 인데, 꾸러미 속에 물건이 들어 있고 양쪽을 끈으로 묶은 형태를 그린 것이다. “動”이라 한 것은 聲訓이다. 동쪽은 움직이는 곳이며, 만물이 소생하는 곳이기에 음이 가까운 東을 빌려 동쪽을 뜻하게 되었다¹⁵³⁾. 『說文』에서 “木”을 따르며, “從日在木中(日이 木에 걸려 있는 것을 따른다)고 한 것은 根據 없는 억지 主張이다.



470. 率


捕鳥畢也。象絲罔，上下其竿柄也。(所律切)

『說文』에서는 字形을 그물로 보고 “捕鳥畢. 象絲罔，上下其竿柄(새를 잡는 그물이다. 실그물 모양이며, 위·아래는 그 장대이다)”라고 해석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으로, 徐中舒는 “삼을 꼬아서 만든 동아줄”¹⁵⁴⁾이라고 보고 있으니 後者를 따른다.



503. 四

陰數也。象四分之形。(息利切)

甲骨文의 자형은 一, 二, 三과 마찬가지로 획을 쌓아 수를 나타낸 와 같은 형상이다. 『說文』에서는 “陰數(陰의 수)”라고 하였는데 이는 陰陽五行說의 觀念으로 “四”를 해석한 것이므로 따를 바가 못된다. 『說文』에서 사방(□)을 八로 나눈 형태라고 한 것은 小篆에만 의한 잘못된 字形分析이다.

153) 上揭書, p.159.

154)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1423.



507. 五

五行也。從二，陰陽在天地間交午也。(疑古切)

『說文』에서는 “五行也. 從二, 陰陽在天地間交午也(五行이다. 二를 따르며, 음양이 천지간에서 交午되는 것이다)라고 陰陽五行說의 原理로 解說하고 있으니 따를 바가 못된다. 甲骨文의 字形은 ×혹은 ☵ 로, “교착되다”가 本義인데 나중에 숫자 5로 借用되었다.



509. 七

陽之正也。從一，微陰從中袞出也。(親吉切)

『說文』에서는 “陽之正也(陽의 바른 것이다), 微陰從中袞出也(微陰중에서 비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陰陽五行說의 原理로 解說한 것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甲骨文의 字形은 十로, 가로획의 가운데에 세로획을 추가하여 가로획을 “절단하다”의 의미를 會意하고 있다. 甲骨文中에서 “十”의 자형이 “|”에서 점차 “七”의 과 비슷한 형태로 변형되자 “七”의 자형을 점차 小篆의 字形과 같이 變化시켜 “十”과 區別시켰다¹⁵⁵⁾.



536. 申

神也。七月。陰氣成，體自申束，從臼，自持也。吏臣舖時聽事，申旦政也。(失人切)

『說文』에서는 “神(신명)”이라고 하였으나 甲骨文의 字形은 申으로, 번개불빛이 屈折된 形象이며 “電”의 初文이다¹⁵⁶⁾. 또한 許慎은 “虫”부의 屬字 “虹”의 아래에 나온 고문 “蚺”에서는 “申, 電也”라 하고, “申”부에서는 “神”

155) 徐中舒 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p.1530.

156) 上揭書, pp.1599~1600.

이라고 하였으니 모순된다. 『說文』에서“陰气成…”등등은 陰陽五行說에 의한 解說이므로 正確하지 않다.

위에서 甲骨文과의 比較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人體와 관련된 文字의 形義해설이 잘 못된 部首는 36字이며, 動植物에 관련 된 것은 11字, 器物에 관련 된 것은 31字, 衣食住에 관련 된 것은 11字, 其他의 文字들은 12字로, 形義解說이 모두 正確하지 않은 部首字는 총 101字이다.



IV. 結 論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說文解字』의 540개 部首 가운데서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部首”는 모두 370字이다. 그 중에서 字形分析이 正確하지 않은 部首는 66字로 17.8%를 차지하는데, 人體에 關聯된 字形에 대한 誤謬는 17字, 動物에 관련 된 것은 8字, 器物에 관련된 것은 16字, 衣食住에 관련된 것은 14字이며 其他 部首의 字形分析에 대한 誤謬는 11字이다.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다.

分類	部 首 字	合計
人體	029. 步 046. 舌 058. 音 101. 眉 213. 出 298. 身 302. 老 320. 欠 322. 次 324. 頁 326. 面 338. 口 342. 辟 346. 鬼 358. 長 403. 夫 429. 非	17
動物	142. 角 167. 虍 168. 虎 366. 豸 372. 鹿 427. 龍 476. 龜 477. 電	8
器物	078. 史 086. 殳 139. 𠄎 141. 耒 144. 箕 160. 壺 164. 豐 179. 鬯 186. 矢 214. 木 279. 网 433. 至 451. 戈 452. 戍 494. 且 532. 辰	16
衣食住	123. 幺 150. 甘 158. 旨 183. 倉 187. 高 189. 郭 194. 香 256. 香 277. 冏 286. 蓰 300. 衣 301. 裘 435. 鹵 466. 系	14
其他	015. 小 034. 彳 096. 爻 231. 日 232. 旦 234. 夂 293. 丘 357. 石 422. 雨 423. 雲 480. 土	11

또한 甲骨文에서는 同一字 혹은 異體字이나 『說文』에서 두 개 혹은 여러 개의 部首로 誤分한 경우는 24가지이며, 그 속에 포함된 部首는 53字인데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다.

- | | |
|----------------------------|-----------------------------------|
| 1) 005. 王과 009. 士 | 2) 021. 告와 046. 舌과 056. 言과 058. 音 |
| 3) 026. 走와 392. 夭 | 4) 031. 正과 040. 足 |
| 5) 033. 辵과 036. 廴 | 6) 034. 彳과 037. 行 |
| 7) 059. 辛과 521. 辛 | 8) 080. 聿과 081. 聿 |
| 9) 103. 自와 104. 白 | 10) 109. 隹와 119. 鳥 |
| 11) 123. ㄣ와 534. 午 | 12) 186. 矢와 530. 寅 |
| 13) 207. 東과 224. 束 | 14) 269. 宀과 272. 穴 |
| 15) 287. 人과 311. 儿 | 16) 290. 从과 291. 比와 294. 亻 |
| 17) 298. 身과 299. 身 | 18) 324. 頁과 325. 頁과 328. 首 |
| 19) 354. 厂과 357. 石 | 20) 389. 大와 402. 大 |
| 21) 418. 永과 419. 永 | 22) 471. 虫와 475. 它 |
| 23) 452. 戊과 517. 戊와 539. 戊 | 24) 525. 子와 533. 巳 |

또 字義解説이 正確하지 않은 部首字는 23字인데 370字 중에서 6.2%를 차지하며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字들이다.

分類	部 首 字	合 計
人 體	031. 正 040. 足 290. 从 299. 身 343. 彳 344. 包 388. 赤 525. 子	8
動 物	108. 羽 109. 隹 115. 義 119. 鳥 373. 麤 378. 夬	6
其 他	001. 一 002. 亠 004. 三 044. 冊 350. 山 354. 厂 382. 火 469. 絲 479. 二	9

『說文解字』의 540개 部首 중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部首” 370字 가운데서 字形과 字義解說이 모두 正確하지 않은 部首字는 101字이며, 370字 중에서 27.3%를 차지는데, 人體와 관련된 文字의 形義해설이 잘 못된 部首는 36字이며, 動植物에 관련 된 것은 11字, 器物에 관련 된 것은 31字, 衣食住에 관련 된 것은 11字, 其他의 文字들은 12字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分類	部 首 字	合計
人 體	027. 止 033. 辵 065. 異 075. 鬥 082. 畫 084. 叀 085. 臣 146. 左 151. 日 152. 乃 172. 去 198. 攴 201. 韋 205. 桀 210. 廴 211. 之 235. 冥 251. 克 284. 白 289. 匕 295. 壬 305. 尸 333. 文 335. 后 340. 色 341. 卯 345. 苟 347. 皀 384. 黑 392. 夭 418. 永 419. 廴 444. 毋 482. 堇 486. 黃 533. 巳	36
動 植 物	107. 習 114. 羊 122. 蓐 133. 鬥 206. 木 242. 多 246. 鹵 253. 禾 365. 豚 432. 不 457. 亡	11
器 物	003. 示 005. 王 009. 土 013. 蓐 042. 品 047. 干 059. 辛 068. 晨 121. 隹 147. 工 149. 巫 165. 豐 182. 會 227. 員 248. 束 252. 彖 264. 灺 310. 方 336. 司 359. 勿 368. 易 397. 幸 453. 我 488. 力 510. 九 517. 戊 520. 庚 521. 辛 530. 寅 537. 酉 539. 戌	31
衣 食 住	125. 重 177. 井 180. 食 190. 京 191. 喜 249. 片 271. 呂 506. 亞 508. 六 516. 丁 534. 午	11
其 他	008. 气 037. 行 053. 古 054. 十 095. 用 140. 丰 207. 東 470. 率 503. 四 507. 五 509. 七 536. 申	12

“甲骨文에서도 보이는 部首” 370字 중 本義가 分明하지 않은 部首는 모두 19字인데 이 部首에 대해서는 아직 정설이 없으므로 許慎의 解說에 대하여 옳다 그르다 結論을 내릴 수 없다. 그 部首들은 具體的으로 다음과 같은 字들이다.

153. 𠄎 154. 可 155. 兮 169. 虬 178. 𠄎 216. 𠄎 238. 有
 312. 兄 449. 氏 499. 𠄎 513. 甲 514. 乙 515. 丙 518. 己
 523. 壬 524. 癸 531. 卯 535. 未 540. 亥

이것을 綜合해 보면 무려 51.3%에 달하는 190字에 대한 字義 혹은 字形 解說이 正確하지 않다. 이 結果를 圖表로 整理하면 다음과 같다.

甲骨文과의 比較를 통한 『說文』 部首의 誤釋 統計表

區分	研究範圍	字形	字義	形·義	誤謬合計	本義不分明	部首誤分
字數	370	66	23	101	190	19	53
百分比	100%	17.8%	6.2%	27.3%	51.3%	5.1%	14.6%

許慎이 쓴 『說文解字』는 中國 言語 文字學 상 不朽의 傑作이지만 위에서 研究한 바와 같이 많은 부분에서 誤謬를 범하고 있는 것 또한 事實이며 不可避한 것이다. 『說文解字』에 대하여 그 偉大한 業績을 높이 評價해야 하나 그가 범한 重大한 誤謬를 밝혀 漢字의 意味를 正確히 인지하는 것도 重要한 作業이다.

參考文獻

論文

- 林貫秋, 「說文解字之“一字注”正誤例案」, 國魂 297卷, 民國 59.8
- 高緒价, 「說文解字根造字研究-文字孳乳新探之一」, 臺北師專學報10. 民國 72.6
- 高緒价, 「說文解字根造字研究-文字孳乳新探之二」, 臺北師專學報11. 民國 73.6
- 江舉謙, 「說文古文研究」, 東海學報 21. 民國 69.6
- 張 標, 「說文部首與字源」, 河北師範大學學報 社科版(石家庄), 1988.1-6
- 林 尹, 「說文二徐異訓辨序」, 中國學報 2輯 1964.12
- 傅東華, 「略談『說文解字』段注的限界性」, 中國語文, 1961.10.11
- 高 明, 「許慎之六書說」, 中華學苑 十七期, 民國 65.3
- 江 英, 「如何運用說文解字」, 國教月刊 29卷, 4期 民國 62.6
- 李孝定, 「從六書的觀點看甲骨文字」, 中國 南洋大學 學報, 第二期 1935.
- 丁邦新, 「中國文字與語言的關係」-兼論中國文字學-, 清華學報 9:1~2, 1960.9
- 賴明德, 「從中國文字以探討古代的思想和制度」, 華文世界 32卷, 民國 73.1
- 高 明, 「論中國文字與中國文學的關係」, 臺灣 孔孟月刊 18, 民國 69.7
- 謝清俊 外, 「中文字根之分析」, 臺灣 科學發展 2卷 2期, 民國 63.2
- 江舉謙, 「中國文字與中國文學」, 東海文藝季刊8, 民國 72.6
- 李 徹, 「說文部首研究」, 臺灣師範大學國文研究所 碩士論文, 民國 76
- 金 槿, 「說文解字 部首의 字次와 그 意義」, 서울大學校 碩士學位論文, 1981

著 書

- 許 慎, 『說文解字』(附檢字), 中華書局, 1963
- 段玉裁, 『說文解字注』,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97
- 王 均, 『說文釋例』, 中華書局, 1987
- 桂 馥, 『說文解字義證』, 中華書局, 1987
- 馬舒倫, 『說文解字研究法』, 香港太平書局, 1970.3
- 陸宗達 著, 金槿 譯, 『說文解字通論』, 韓國 啓明大學校出版部, 1994

- 江學謙, 『說文解字綜合研究』, 臺灣東海大學, 民國 59
- 臧克和, 『說文解字的文化說解』, 中國 湖北人民出版社, 1994.12
- 謝棟元, 劉方, 『說文解字與中國古代文化』, 中國 遼寧人民出版社, 2000
- 余行達, 『說文段注研究』, 中國 巴蜀書社, 1999
- 趙平安, 『說文小篆研究』, 中國 廣西教育, 1999
- 康 殷, 『說文部首銓釋』, 中國 國際文化出版公司, 1992.1
- 董蓮池, 『說文部首形義通釋』, 中國 東北師範大學出版社, 2000
- 王峙淵, 『說文研究』, 臺灣 瑞成書局, 民國 71.7
- 高 明, 『中國古文字學通論』, 中國 北京大學出版社, 1996
- 李敦柱, 『漢字學總論』, 韓國 博英社, 2000
- 최영애, 『漢字學講義』, 韓國 통나무, 1997
- 阿辻哲次 著, 沈慶昊 譯, 『漢字學-說文解字의 世界』, 以會文化社, 1996
- 馬如森, 『殷墟甲骨文引論』, 中國 東北師範大學, 1993
- 齊冲天, 『書法文字學』, 中國 北京語言文化大學, 1997
- 秦文錦, 『金文集聯』, 中國書店, 1998
- 劉 翔 外, 『商周古文字讀本』, 中國 語文出版社, 1996
- 金應顯, 『石鼓文』, 韓國 東方研書會, 1998
- 李 圃, 『甲骨文文字學』, 中國 學林出版社, 1997
- 徐中舒 主編, 『甲骨文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8
- 于省吾, 『甲骨文字詁林』, 中華書局, 1996
- 趙 誠 編, 『甲骨文簡明詞典』, 中華書局, 1998
- 徐无閔 主編, 『甲金篆隸大字典』, 中國 四川辭書出版社, 1996
- 高樹藩 編, 『正中形音義綜合大字典』, 臺灣 正中書局, 民國 60
- 胡光燾, 『胡小石論文集三編』, 中國 上海古籍出版社, 1996
- 郭沫若, 『卜辭通纂』, 中國科學出版社, 1983
- 中國社會科學研究院考古研究所, 『甲骨文編』, 中華書局, 1965
- 黃伯榮, 廖序東 主編, 『現代漢語』, 中國 高等教育出版社, 1993
- 『漢語大詞典』, 中國 漢語大詞典出版社, 2000
- 『標準篆刻篆書字典』, 一信書籍出版社, 1991
- 安在哲, 『540部首의 字源에 의한 漢字의 理解』(假稱), 未出版講義本

【中文抄錄】

『說文』部首字之誤謬研究

-通過與甲骨文的比較-

徐永根

『說文解字』是後漢人許慎所著的中國語言文字學史上第一部字典，它在文字學，聲韻學，訓詁學等方面具有很大的影向。

『說文解字』的研究不但停在為研究經書的補助書，而且還展開獨立的學問-小學，出現了稱為『說文』學最高峰的段玉裁著『說文解字注』以及王筠著的『說文解字句讀』，朱駿聲著的『說文解字通訓定聲』等卓越的著書。

許慎在『說文解字』中以形與義兩維標準來確立540部首，使9353小篆“分別部居，不相雜廁”，正是形義統一規律在起作用。這個“部首法”是『說文解字』以前沒有過的一種特殊方法，對後世的『康熙字典』，『新華字典』等字典和詞典的編輯產生了很大的影向。

許慎處在中國語言文字學的初創期，受了時代的影向，並且許慎編『說文解字』的當時還沒有發現甲骨文，所以在解說當中有不少錯誤。

本文的研究目的在指正『說文』的誤謬，進一步探索漢字的本義，而為漢字教育提供正確的基礎。

以上述的研究目的，本論文以『說文解字』的540部首當中“甲骨文里也有的370部首字”為研究範圍，通過甲骨文的比較來研究其誤謬。餘下的170部首字里也存在誤謬，但因為甲骨文等根據資料不充分，不

包括在研究範圍。

文字的研究方法里有“形·音·義”等，本文從“形·義”兩方面來研究。

研究結果，『說文解字』的540部首當中“甲骨文字里也有的370部首字”中，字形分析不正確的部首有66字，占17.8%，字義解說不正確的部首有23字，占6.2%，形義解說都不正確的部首有101字，370字中占27.3%。

另外，本義不分明的部首有19字，在甲骨文字里是同一字或異體字，但許慎誤分爲兩個或者三四個部首的有24種53個字。以上的結果用圖表來統計如下。

區分	研究範圍	字形	字義	形·義	誤謬合計	本義不分明	部首誤分
字數	370	66	23	101	190	19	53
百分比	100%	17.8%	6.2%	27.3%	51.3%	5.1%	14.6%

我們要承認『說文解字』的偉大的業績，并對它的缺點也要重視。這樣才能正確地運用這部偉大的著作，爲中國語言文字學的發展和漢字教育而作出貢獻。

【附錄】

『說文』 540部首의 小篆과 甲骨文 對照表

〔일러두기〕

- 1) 甲骨文 앞에 “*”가 있는 것은 관련 屬字의 部首를 따온 것이다.
- 2) 甲骨文 앞에 漢字가 있는 것은 해당 屬字의 甲骨文이다. 다만 356(危)部의 경우는 “危”가 따르는 “𠄎”의 甲骨文, 89(寸)部의 경우는 屬字가 아닌 “寸”을 따르는 “尋”의 甲骨文을 수록하였다.



卷一上

001.一 002.上 003.示 004.三 005.王 006.玉 007.珏 008.气

小篆

一 上 示 三 王 玉 珏 气

甲骨文

一 二 示 三 王 玉 珏 三

卷一下

009.士 010.丨 011.中 012.艸 013.蓐 014.𦰇

士 丨 中 艸 蓐 𦰇

士 中 丨 艸 蓐 莫 𦰇

卷二上

015.小 016.八 017.𦰇 018.半 019.牛 020.犛 021.告 022.口

小 八 𦰇 半 牛 犛 告 口

小 八 𦰇 半 牛 犛 告 口

023.凵 024.𠂔 025.哭 026.走 027.止 028.𠂔 029.步 030.此

凵 𠂔 哭 走 止 𠂔 步 此

𠂔 𠂔 哭 走 止 𠂔 步 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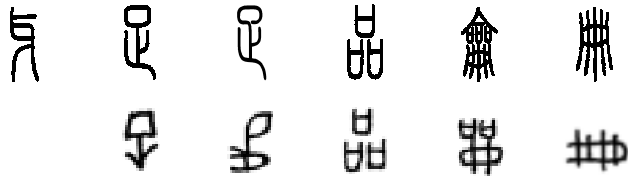
卷二下

031.正 032.是 033.彳 034.彳 035.彳 036.彳 037.行 038.齒

正 是 彳 彳 彳 彳 行 齒

正 是 彳 彳 彳 彳 行 齒

039.牙 040.足 041.疋 042.品 043.龠 044.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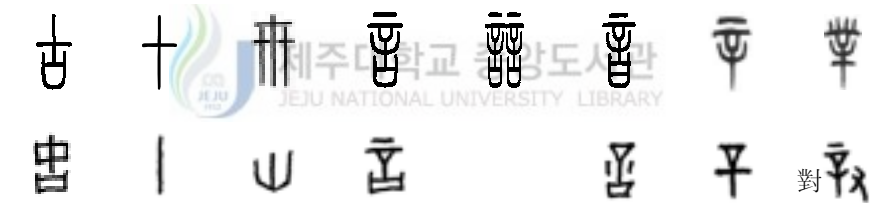


卷三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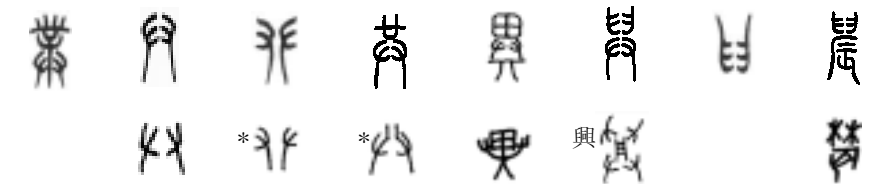
045.罍 046.舌 047.干 048.畚 049.只 050.向 051.句 052.卩



053.古 054.十 055.卅 056.言 057.誥 058.音 059.辛 060.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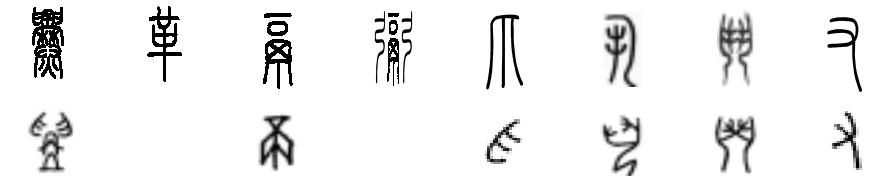


061.蕞 062.奴 063.殲 064.共 065.異 066.昇 067.臼 068.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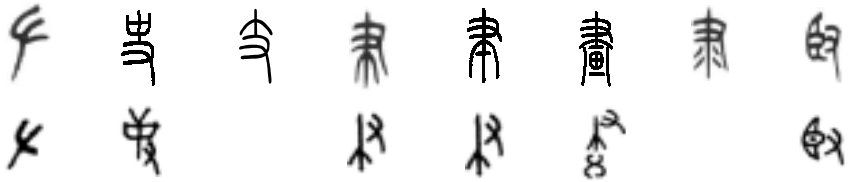


卷三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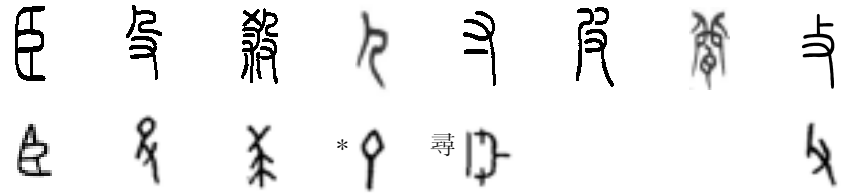
069.爨 070.革 071.鬲 072.鬲 073.爪 074.夙 075.鬥 076.又



077. 史 078. 史 079. 支 080. 聿 081. 聿 082. 畫 083. 聿 084. 𠄎



085. 臣 086. 攴 087. 殺 088. 尢 089. 寸 090. 皮 091. 斲 092. 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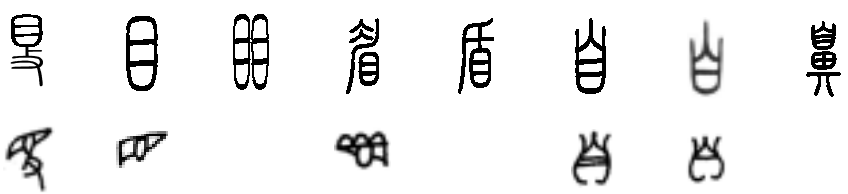


093. 教 094. 卜 095. 用 096. 爻 097. 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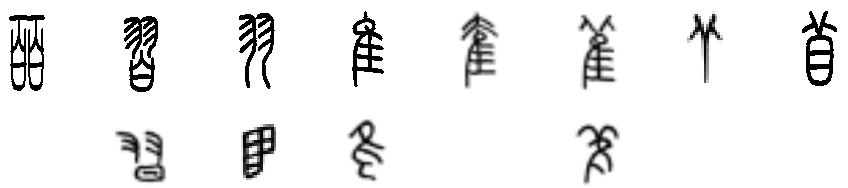


卷四上

098. 𠄎 099. 目 100. 𠄎 101. 眉 102. 盾 103. 自 104. 白 105. 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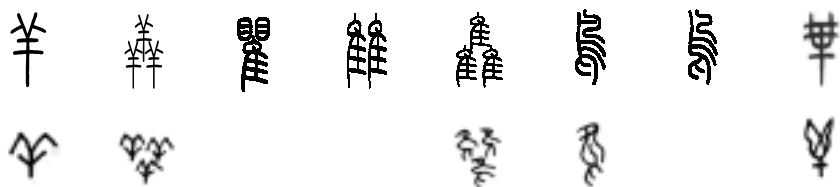


106. 𠄎 107. 習 108. 羽 109. 隹 110. 隹 111. 隹 112. 𠄎 113. 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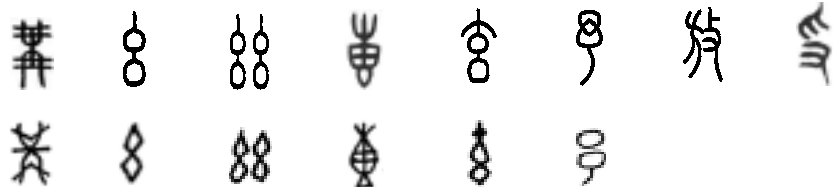


卷四下

114.羊 115.羴 116.瞿 117.雉 118.龜 119.鳥 120.烏 121.華



122.蕞 123.玄 124.玆 125.蠶 126.玄 127.予 128.放 129.彘



130.奴 131.夂 132.死 133.冎 134.骨 135.肉 136.筋 137.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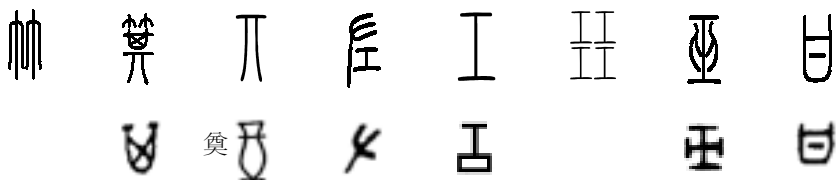


138.刃 139.勑 140.丰 141.耒 142.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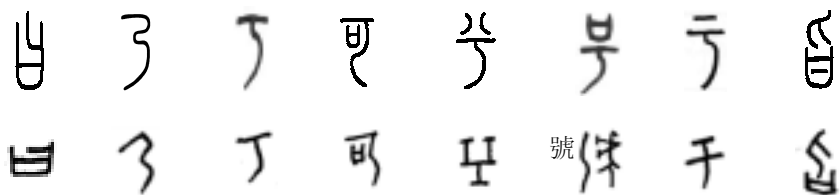


卷五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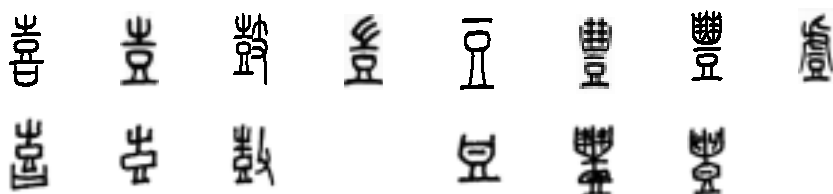
143.竹 144.箕 145.丌 146.左 147.工 148.彗 149.巫 150.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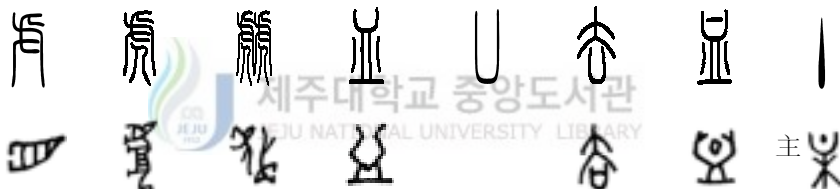
151.日 152.乃 153.丂 154.可 155.兮 156.号 157.亏 158.旨



159.喜 160.壹 161.鼓 162.豈 163.豆 164.豐 165.豐 166.虛



167.虍 168.虎 169.虤 170.皿 171.凵 172.去 173.血 174.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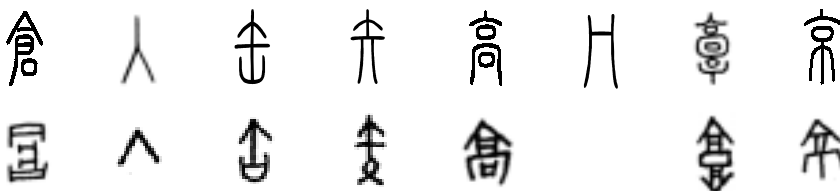


卷五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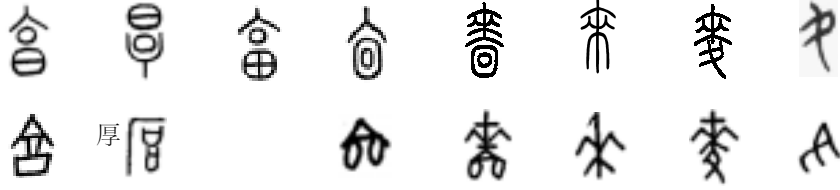
175.丹 176.青 177.井 178.皂 179.鬯 180.食 181.亼 182.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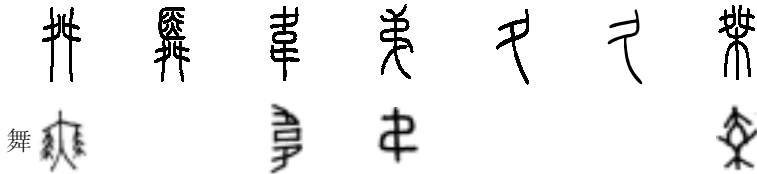
183.倉 184.入 185.缶 186.矢 187.高 188.冂 189.耘 190.京



191.喜 192.厚 193.富 194.命 195.壽 196.來 197.麥 198.父



199.舞 200.舜 201.韋 202.弟 203.父 204.久 205.桀



卷六上

206.木 207.東 208.林 209.才 210.彘 211.之 212.帀 213.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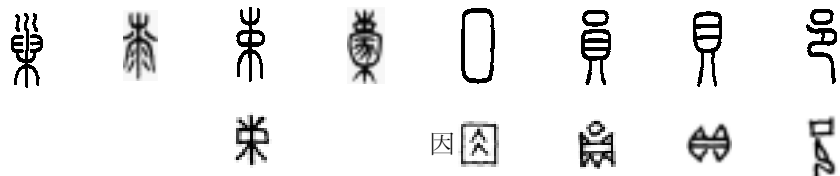


卷六下

214.束 215.生 216.毛 217.采 218.粵 219.華 220.未 221.稽



222.巢 223.黍 224.束 225.囊 226.口 227.員 228.貝 229.邑



230. 𨾏



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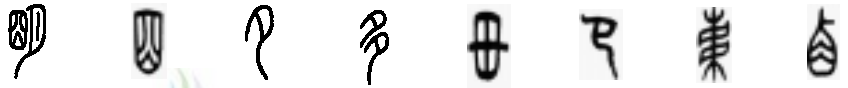


卷七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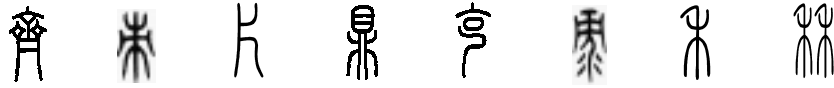
231. 日 232. 旦 233. 𠄎 234. 𠄎 235. 冥 236. 晶 237. 月 238. 有



239. 𠄎 240. 𠄎 241. 夕 242. 多 243. 𠄎 244. 𠄎 245. 𠄎 246. 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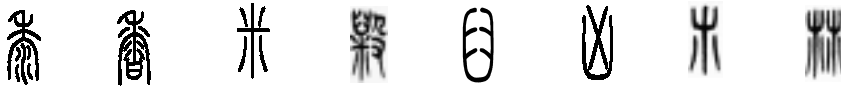


247. 齊 248. 束 249. 片 250. 鼎 251. 克 252. 𠄎 253. 禾 254. 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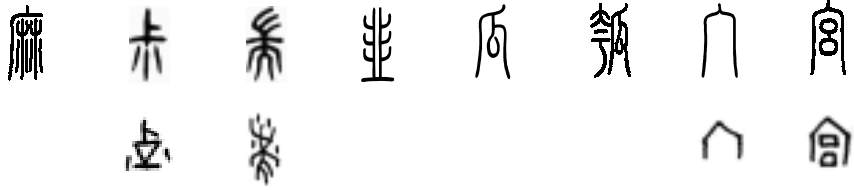


卷七下

255. 黍 256. 香 257. 米 258. 穀 259. 白 260. 凶 261. 𠄎 262. 秝



263.麻 264.赤 265.耑 266.韭 267.瓜 268.瓠 269.宀 270.宮



271.呂 272.穴 273.癩 274.疒 275.冂 276.冂 277.冂 278.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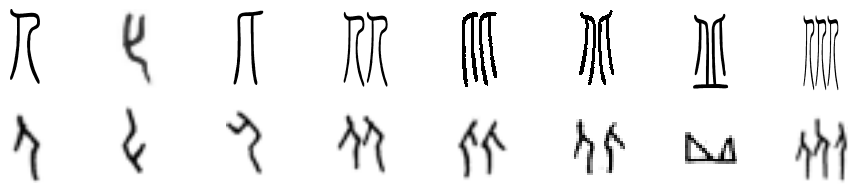


279.网 280.西 281.巾 282.市 283.帛 284.白 285.齒 286.齒



卷八上

287.人 288.匕 289.匕 290.从 291.比 292.北 293.丘 294.伙



295.壬 296.重 297.臥 298.身 299.身 300.衣 301.裘 302.老








卷八下

303.毛 304.毳 305.尸 306.尺 307.尾 308.履 309.舟 310.方

							
* 							

311.儿 312.兄 313.无 314.兒 315.𠃉 316.先 317.秃 318.見











							
							

319.覞 320.欠 321.飲 322.次 323.𠃉



				
				

















卷九上

324.頁 325.𠃉 326.面 327.𠃉 328.首 329.𠃉 330.須 331.彡












							
							

332.彡 333.文 334.彡 335.后 336.司 337.后 338.巳 339.印

340.色	341.卯	342.辟	343.勺	344.包	345.苟	346.鬼	347.亩
							
							

卷九下

348.厶	349.嵬	350.山	351.岫	352.产	353.广	354.厂	355.丸
							
							

356.危	357.石	358.長	359.勿	360.丹	361.而	362.豕	363.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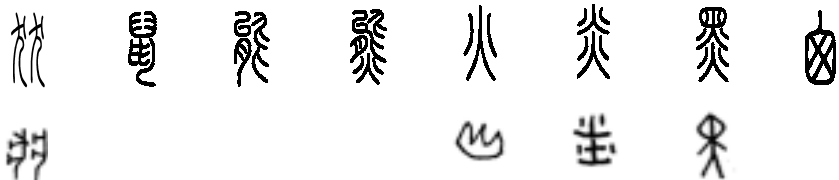
364.彑	365.豚	366.豸	367.豨	368.豨	369.象
					
					

卷十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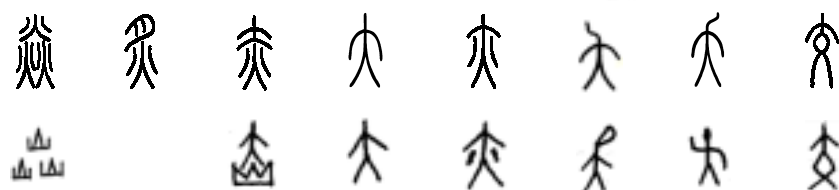
370.馬	371.廌	372.鹿	373.麤	374.麤	375.兔	376.兔	377.犬
							
							

卷十下

378. 炆 379. 鼠 380. 能 381. 態 382. 火 383. 炎 384. 黑 385. 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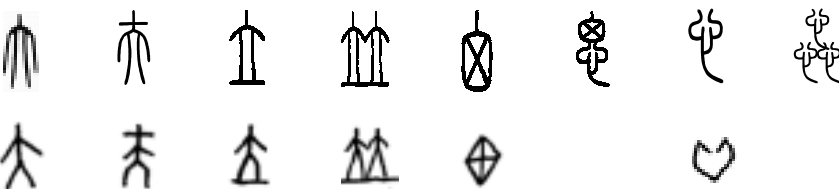
386. 焱 387. 炙 388. 赤 389. 大 390. 亦 391. 矢 392. 夭 393. 交



394. 尢 395. 壺 396. 壹 397. 幸 398. 奢 399. 亢 400. 夊 401. 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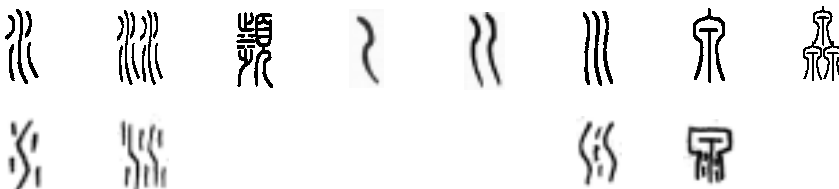
402. 尗 403. 夫 404. 立 405. 竝 406. 囟 407. 思 408. 心 409. 惛



卷十一上

卷十一下

410. 水 411. 林 412. 灑 413. 彡 414. 彡 415. 川 416. 泉 417. 蟲



418.永	419.歲	420.谷	421.宀	422.雨	423.雲	424.魚	425.鱉
							
							

426.燕	427.龍	428.飛	429.非	430.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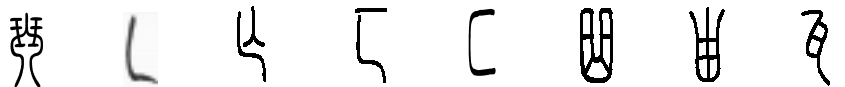
卷十二上

431.乳	432.不	433.至	434.西	435.鹵	436.鹽	437.戶	438.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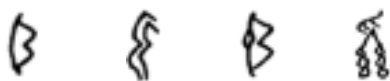
卷十二下

439.耳	440.匪	441.手	442.率	443.女	444.毋	445.民	446.丿
							
							
		揮					
447.彳	448.乚	449.氏	450.氐	451.戈	452.戎	453.我	454.丿
							
							

455.琴 456.匚 457.亡 458.匚 459.匚 460.曲 461.曲 462.瓦



463.弓 464.弓 465.弦 466.系



卷十三上

卷十三下

467.糸 468.素 469.絲 470.率 471.虫 472.虫 473.蟲 474.風



475.它 476.龜 477.龜 478.卯 479.二 480.土 481.土 482.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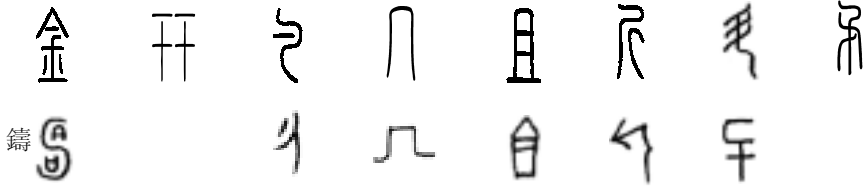


483.里 484.田 485.畹 486.黃 487.男 488.力 489.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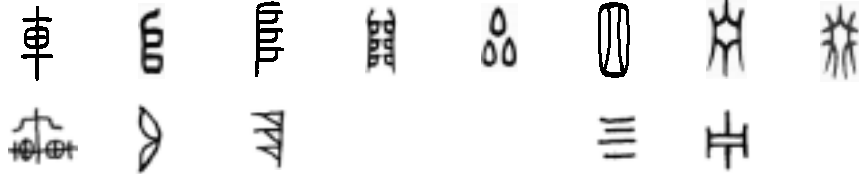
卷十四上

490.金 491.开 492.勺 493.几 494.且 495.斤 496.斗 497.矛



卷十四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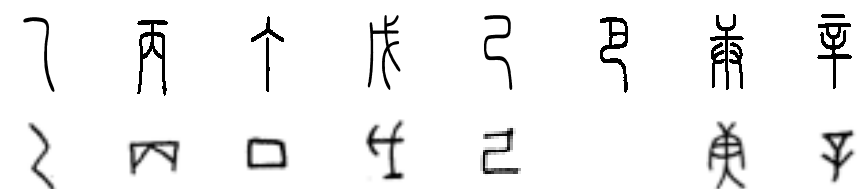
498.車 499.自 500.阜 501.黼 502.立 503.四 504.宁 505.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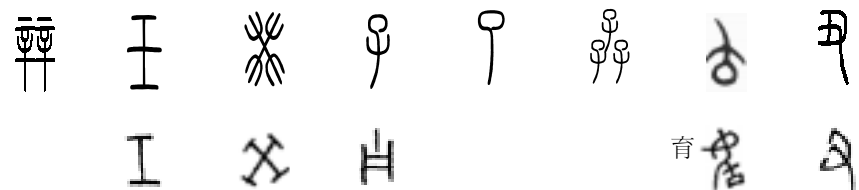
506.亞 507.五 508.六 509.七 510.九 511.内 512.喜 513.甲



514.乙 515.丙 516.丁 517.戊 518.己 519.巴 520.庚 521.辛



522.辨 523.壬 524.癸 525.子 526.了 527.弄 528.去 529.丑



530.寅 531.卯 532.辰 533.巳 534.午 535.未 536.申 537.酉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𠄎 𠄏 𠄐 𠄑 𠄒 𠄓 𠄔 𠄕

538.戌 539.亥

戌 亥
𠄖 𠄗



【英文抄錄】

ABSTRACT IN ENGLISH

**Study on the mistakes of building blocks of Chinese Characters
in Shuo Wen Jie Zi**

-As compared with that in Oracle Bone Inscriptions-

XU YONGGEN

Shuo Wen Jie Zi, written by Xu Shen in the latter Han, is the first Chinese Character Dictionary in Chinese language and cultural history, its influences on the afterwards Chinese vocabulary, Chinese phonetics as well as Shunguxue are enormous. Xu Shens work was not only a complement tool to investigate the Old Chinese Jingshu, at the same time, a new research area, named Xiaoxue, was also founded in his work. After the publish Shuo Wen Jie Zi, there were many excellent great works related to this area, such as Notation to Shuo Wen Jie Zi written by Duan Yucai, Sentences Interpretation in Shuo Wen Jie Zi written by Wang Jun and Phonetics Origin in Shuo Wen Jie Zi written.

As many as 540 building blocks of Chinese vocabulary was separated by Xu Shen in Shuo Wen Jie Zi, based on these blocks more than 9353 Chinese words, so called Small Seal, could be formed independently and definitely, combining the pictography and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The method of Xu Shen was original in history and was employed by the composition of afterwards Chinese dictionary such as Kangxi Dictionary and Xinhua Dictionary.

There were many mistakes in Shuo Wen Jie Zi as Xu Shens time was not so far from the beginning of Chinese Characters, moreover, the Oracle Bone Inscriptions, which was the oldest origin of writing Chinese, had not been found during that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and correct the mistakes in Shuo Wen Jie Zi, further explore the original meanings

of Chinese Characters and make a sound background for nowadays Chinese language education.

In order to realize above purpose, this study choose the 370 building blocks of Chinese Character, which appeared in both Shuo Wen Jie Zi and Oracle Bone Inscriptions, as the targets, find out the mistakes through comparing the difference in above two materials. Because of the lack of references, the other 170 blocks are not included in this study.

Generally speaking, there are three methods for language study, that is, from pictography, from meanings and from phonetics, the former two methods are employed in this study.

The study results indicate that there are 66 blocks having pictographic mistakes, about 17.8%, 23 blocks having meaning mistakes, about 6.2%, and 101 blocks having both pictographic and meaning mistakes, about 27.3% of 370 blocks.

Additionally, there are 19 blocks whose original meaning are not clear. And other 53 blocks in 24 kinds has only one meaning in Oracle Bone Inscriptions, but 2 or 3 kinds of meanings in Shuo Wen Jie Zi. Above results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Items	Total Blocks	Pictographic Mistake	Meaning Mistake	P+M Mistake	Total Mistakes	Meaning Unclear	Mistake Clarification
Amounts	370	66	23	101	190	19	53
Percentage	100%	17.8%	6.2%	27.3%	51.3%	5.1%	14.6%

We should face the mistakes when we give our respects to Shuo Wen Jie Zi, only by this way could we use this great work to develop our Chinese Character education to a higher stage.